

석사학위논문

제주 4·3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김 은 희

2005년 12월

제주 4·3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지도교수 권인혁

김은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김은희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5년 12월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rategic Village
in the Jeju 4 · 3 Uprising

Eun-Hee Kim

(Supervised by Professor In-Hyuk Kw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5. 12.

< 목 차 >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논문의 구성과 자료	4
II. 제주 4·3전략촌의 형성과 역할	6
1. 제주 4·3 진압작전 전개과정	6
2. 제주 4·3전략촌의 형성	12
3. 제주 4·3전략촌의 역할	17
III. 제주 4·3전략촌의 성격 변화와 구조	29
1. 제주 4·3전략촌의 성격 변화	29
2. 제주 4·3전략촌의 구조	37
IV. 결론	46
참고문헌	48

Abstract

On April 3, 1948, Jejudo guerrillas rose in uprising against the repression of the police and the rightist youth associations, separated election and separated government. And, with the anti-America national salvation struggle, they wanted the unified government. So, the government proclaimed martial law on November 17 in Jeju Island. After that, the security forces set up the Jeju 4·3 strategic villages in the coastal areas and forced islanders into these villages to watch and control their activities. I paid attention to these aspects and raised the following research subjects.

First,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ression operations and the strategic villages? And what is the background? Second, What was the role of strategic villages and how were the strategic villages formed? Third, how did the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village change and how did this change affect the process of rebuilding the mountainside villages? Fourth, under what did the structure of the strategic villages, did they watched Jeju islanders for 6 years. Fifth, what was the role of castles of strategic villages?

The overall summaries about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Jeju 4·3 strategic villages are as follows. It was the tactics of the security forces that they forced the people classified as the so-called 'innocent citizens' to these villages and sweep out the rest in the process of repressing the Jeju 4·3 Uprising. People who were in the strategic villages were issued the identification cards by the security forces. And they were engaged into the forced labor to build the castles for the purpose of isolating from the

guerrillas in the name of protection. They also suffered by the guarding duty day and night. The castles of strategic villages were the best tools to suppress the Jeju 4·3 Uprising. The security forces drove Jejudo islanders into the strategic villages and conducted the mopping-up operations in the short term.

And they succeeded in suppressing the guerrillas.

Jeju residents had suffered severely in the bondage of Jeju 4·3 Uprising for 10 years beginning from the incident on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Day of March 1, 1947 via the expanded 4·3 resistance until in 1957 when the last guerrilla, Oh Won-kwon was arrested. They went down to the coastal areas as the government ordered and again built the castles for mountainside villages. They did duty of guard and suppression for 6 years in isolation. Besides they had to do all kinds of errands such as supplying food and washing clothes for police detachments or police stations. They had lived day by day even without drawing a big breath because they had to be joint responsibility for the 4·3 Uprising.

The Jeju 4·3 strategic villages made the center of the daily life from mountainside villages to coastal villages after the 4·3 Uprising. Solidarity among islanders, which had been like a group sharing a common blood before the uprising, disappeared and rose the trend of distrust and estrange one another. Nevertheless Jejudo islanders, who suffered from the madness of the Jeju 4·3 Uprising, have constructed today's Jeju Island with strong mental power and the will to rebuild the community.

I. 서론

1. 문제제기

제주 4·3¹⁾은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 법의 제정으로 사건 발생 55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에 의해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2003년 10월 정부의 공식 문건으로 채택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행위’로 규정했다. 뒤를 이어 대통령은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대통령의 사과로 제주도민들은 4·3에 연루되어 죄인 아닌 죄인으로 연좌되어 온 것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제주4·3특별법에 의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조사하며 확보한 많은 4·3 자료는 『제주 4·3사건자료집』 11권으로 묶여 발간되었다. 학계도 다방면의 제주 4·3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나 제주 4·3 진상규명과 집단학살을 조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필자는 정부가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어진 소개(疎開)작전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는 시점까지, 제주도민들을 가둬 놓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당시 정부는 제주 4·3전략촌을 구축하고 6년²⁾ 동안 무장대로부터의 차단·방어를 최우선 목적으로, 주민들을 감시·통제해 왔다.

실제로 제주 4·3 전개과정 동안 정부는 제주 4·3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무

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공포 1999.12.16, 제정 2000.1.12)은 ‘제주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43을 성격 규명 하지 않아 필자는 43을 ‘제주 4·3’으로 통칭하여 정리했다.
2) 소개 작전이 완료된 1949년 1월부터 성담 경비가 해제되는 1954년 9월 21일 까지 기간이다.

시한 채 제주 4·3을 대게릴라전으로 몰고 갔다. 이는 세계 어디서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전략과 전술로서 제주 4·3에 그대로 적용시켰다. 세계적으로 대게릴라전의 양상은 ‘대테러 - 주민 재정착 - 초토화 작전’으로 전개되었고, 이러한 과정에 무고한 양민학살은 불가피하였다. 한 예로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한 미군 장교는 “우리는 마을을 구하기 위해 마을을 파괴하여야 하였다.”고 말했듯이 대게릴라전에서의 대량학살은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 4·3 진압과정에 나타난 것을 보면 첫째, 무차별 학살과 방화로 제주도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켰다. 둘째, 주민과 무장대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제주 4·3전략촌과 방어시설(=석성)을 구축하였다. 셋째, 철저한 주민 통제를 위해 양민증을 발급하고 주민들 일거일동을 감시하였다. 넷째, 민보단을 강화하여 주민 자치 경비를 전담시켰다 등등은 대게릴라전의 전략과 전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정부가 제주 4·3의 해결을 위해 제주도적으로 제주 4·3전략촌을 구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여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제주 4·3 진압작전과 제주 4·3전략촌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둘째, 제주 4·3전략촌의 형성 과정과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제주 4·3전략촌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했고, 그에 따른 중산간 마을 재건 과정은 어떠했는가, 넷째, 제주 4·3전략촌은 어떠한 구조로 제주도민을 6년 동안 감시·통제했는가, 다섯째, 당시 구축한 4·3전략촌성(城)은 어떤 역할이었는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제주 4·3전략촌’은 제주 4·3 진압작전의 한 과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전략촌’이라 하면 양민들을 한곳으로 이주시키고, 무장대의 거점을 없앤다는 전략에서 나온 집단수용소 격인 마을을 말한다.³⁾ 제주 4·3을 게릴라전으로 파악한

3) ‘전략촌’의 한 예로 일본군은 만주국 각지에 비민분리공작을 위해 실행하였다. 일본군은 항일유격대와 민중 특히 농민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無主地帶를 설정하여 집단 부락과 안전 농촌을 대거 건설하려 했다. 무주지대의 대표적인 예로 통화현 북부, 유하·김천현의 동부, 몽강, 무송현의 남부, 임강현 서부 및 산림지역에 설정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동서 100km, 남북 50여 km에 달했다고 한다. 또 일제의 비민분리정책과 무주지대의 정책은 매우 폭압적으로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길림성 유하현 영선촌의 경우 농가 113호, 주민 730여명, 경지 6,400여 무

정부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것이 제주 4·3전략촌이었고, 제주도의 돌을 이용하여 방어시설인 성담을 쌓게 하였다.

‘4·3 석성’은 제주 4·3 전반에 걸쳐 쌓여진 석성들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① 지서를 방어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쌓았던 지서성, ② 마을마다 경비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제주 4·3전략촌성, ③ 토벌 목적의 산간 중요 요충지마다 쌓은 군·경 주둔소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4·3석성’은 제주도 방어유적인 역대 성의 규모나 숫자, 길이 면에서 훨씬 크고 다양했다.

그동안 ‘제주 4·3전략촌’과 ‘4·3 석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다. 기존 연구자들은 제주 4·3전략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정도였으며 제주 4·3 진압작전과 전략촌의 축성과정을 연관시켜 설명한다거나 제주 4·3전략촌이 어떤 형태로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없었다.

박명림은 제주 4·3 진압작전에서 전략촌과 소개 전략은 일제가 중국 및 조선의 항일 게릴라를 토벌할 때 사용하던 전략으로 무장대와 주민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작전이라 하였다.⁴⁾

존메릴은 11연대 진압작전은 3단계로 수립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1단계는 높은 석벽을 쌓아 마을을 요새화하여 전략촌을 세우는 것이며, 2단계는 군·경·민 합동작전으로 섬의 내륙을 초토화하고 주민들을 해안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며, 3단계는 게릴라의 용의자를 찾아내기 위해 심사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라 하였다.⁵⁾ 이렇듯 제주 4·3 진압작전이 군에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

(畝), 우마 380여두가 있었다. 그런데 관동군이 1935년 8월 27일 관동군 50여명이 이 마을로 들어닥친 뒤 농민들에게 곧 이사하도록 명령하고 이미 영글은 곡식을 수확하지도 못하게 했다. 그리고 이들은 398간의 집을 불사르고, 정국균 등 2명을 불태워 죽였으며, 양식 740여석과 우마 50여 두를 약탈해갔다. 그 외에 주민 20여명을 잡아갔는데 농민들이 여전히 집을 떠나려 하지 않자, 농민 7명을 데리고 가 총살해버렸다. 이후 마을 사람들 가운데 집단부락으로 이주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타향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원래의 마을은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무인지대로 변하고 말았다. 윤희탁 「일제하 滿洲國의 치안숙정공작 연구」,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191쪽.

4) 박명림,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8.

5)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1980), p.175. 노민영 역음, 『잠들지 않는 남도』, 1988. 50~51쪽. 재인용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호준은 제주 4·3 당시 일어난 집단학살을 제노사이드 이론에 적용시켜 분석하면서, 강제이주 정책과 초토화 작전은 대게릴라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혔다.⁶⁾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의 『4·3은 말한다』는 축성 작업과 경비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마을별로 정리 해 놓았다.⁷⁾ 그리고 제주 4·3 진압 작전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는 허호준,⁸⁾ 함옥금,⁹⁾ 강성현¹⁰⁾ 등이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2. 논문의 구성과 자료

이 논문의 구성은 서론의 문제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제주 4·3전략촌의 형성과 역할을 고찰한다. 본 고찰에 앞서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를 일으킨 시점을 시작으로 토벌대의 진압 과정과 제주 4·3 진압작전 속에서 제주 4·3전략촌은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형성됐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제주 4·3전략촌의 무장대 차단, 주민 통제, 연대 책임식 경비 활동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제주 4·3전략촌의 성격 변화와 구조를 살펴보았다. 제주 4·3전략촌의 4·3 진압과정에 따른 성격 변화를 검토하였다. 4·3전략촌의 구조는 마을에서 비교적 조사가 잘 되어 있는 안덕면 ‘화순리 4·3전략촌성’과 제주시 연동 ‘도호동 4·3전략촌성’을 선택하여 살펴보았고, 북제주군 조천면 선흘리 ‘낙선동 4·3전략촌성’은 필자가 별도의 현장 조사를 통해 복원한 구조도를 가

6) 허호준, 『제주 4·3항쟁과 제노사이드』, □□4·3과 역사□□, 각, 2004

7)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1~5권, 전예원, 1994~1998

8) 허호준,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2.

9) 함옥금, 「제주 43의 초토화 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4.

10) 강성현, 「제주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2.

지고 살펴보았다.

제4장은 논문의 결론으로 본론의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도내 제주 4·3전략촌에 대한 1차 자료로서 체험자들의 구술 증언을 채록하였고, 당시 신문과 잡지들을 검토하였다. 연구 자료로는 ①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전 5권(1994~1998), ②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 ③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전11권(2002~2003), ④ 「주한미군 정보 참모부(G-2)의 정보 보고서」와 「방첩대 CIC문서」, 「주한미군정청문서」 등의 미군 관계 자료, ⑤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2000)와 『제주4·3자료집Ⅱ』, (2001), ⑥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 4·3 유적』(2003 ~ 2004), ⑥ 각 마을에서 편찬한 마을지, ⑦ 기타 연구 논문, 자서전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전개했다.

특히 『제주 4·3 유적』, (2003~2004)는 제주도내 4·3 유적지를 조사하여 597개소의 4·3 유적 중 81개소의 4·3 석성을 찾아냈다.¹¹⁾ 이 보고서는 4·3 석성을 쌓게 된 경위와 현황만 간단히 소개할 뿐이나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11) 보고서는 현재 남아 있는 석성의 현황을 북군, 제주지역인 54개소로, 제주읍 8, 조천면 2, 구좌면 1, 애월면 20, 한림면 7, 한경면 6개소 등과 주둔소성 10개소로 조사되었다. 남군, 서귀지역은 27개소로 대정면 6, 안덕면 2, 중문면 6, 서귀면 2, 남원면 4, 성산면 1개소 등과 주둔소성 6개소로 조사되었다. 제주도·제주 4·3연구소, 『제주 4·3 유적』, 각, (2003~2004)

II. 제주 4·3전략촌의 형성과 역할

1. 제주 4·3 진압작전 전개과정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해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 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무장대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와 조국통일독립, 반미구국투쟁을 봉기의 기치로 내세웠다. 350여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또한 경찰, 서북청년회 숙소와 독립축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하였다.¹²⁾

이에 1948년 4월 5일 제주비상경비사령부(사령관 김정호)를 설치하고 도내 치안을 수습코자 1948년 4월 8일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제주도내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도에 대하여 전 경찰력을 집중, 소탕전을 전개하려 한다. 친애하는 도민제위는 경찰에 협력하여 적의 준동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락별로 향보단을 조직하고 불량도배의 침입을 방지하라.¹³⁾

미군정은 어쨌든 5·10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를 위해 김대봉을 제주에 파견하여 선무공작까지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무공작대 경무부 경찰공보실장 김대봉은 제주도 시찰 후 귀순자도 다수이며 제주성내는 평온했다고 전했다.¹⁴⁾ 그러나 제주도는 끝내 남한에서 5·10선거를 보이코트한 유일한 지역이 되었고, 남한에 있던 미군 사령관들은 분개하였으며, 일

1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167쪽.

13) 『경비사령부에서 포고문 발표』, □□제주신보□□, 1948년 4월 10일

14) 『귀순자도 다수, 제주성내는 평온했다, 선무공작 갔다 온 김공보실장 담』, □□경향신문』, 1948년 5월 6일

련의 사건이 있는 뒤 미군정에 참여한 남한의 지도자들은 소위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휘말린 제주도를 청소하는 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군정은 제주도에서 5·10선거가 실패하자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서 강력한(선거방해) 시도를 했으며, 분명히 다른 지방과 북한으로부터 많은 수의 훈련된 선동가와 다량의 무기, 탄약을 들여왔다.”며 “이런 시도는 계속되고 있고, 공산주의 라디오 방송에서는 제주도를 ‘동양의 그리스’로 취급할 것”이라고 보았다. 5·10선거 당일 외신기자가 조선을 그리스 사태의 재현이라고 한 보도는 미군정이 제주도 상황을 그리스내전과 견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5·10선거가 저지된 직후 군 병력과 함께 응원경찰대도 크게 증강되었다. 미군정은 증강된 병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5월 중순께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브라운 대령(미군 20연대장)을 파견, 제주 현지작전의 최고 지휘관으로 경비대, 해안경비대, 경찰과 미군을 통솔하도록 했다. 브라운 대령은 ‘원인 치유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진압 뿐’이라며 강경진압 일변도로 몰고 갔다.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 작전에 대해 (1) 경찰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도로로부터 4km까지 사이에서 치안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2) 국방경비대는 제주도의 서쪽으로부터 동쪽 땅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리는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무를 각각 분담한 것은 첫째 경찰은 치안 행동을 취하게 하고, 둘째 국방경비대는 산중에서 전투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3) 해안경비대는 하루에 두 번씩 제주도 일대 해안을 순회하며 밀선의 왕래를 방지하고 있는 한편 국방경비대의 수송에도 종사하고 있다¹⁶⁾고 했다. 이것은 제주도를 빗질하듯 싹쓸이하려는 전략이었다.¹⁷⁾

신임 박진경연대장도 그 동안의 경비대의 온건 전략에서 탈피, 대대적인 토벌 위주의 작전을 전개했다. 그가 연대장 취임식 때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15) 허호준, 「제주 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2, 80쪽.

16) 「불원 진정 기대」, 『현대일보』, 1948년 6월 3일

17) 허호준, 「제주 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2, 82쪽.

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발언했다는 전임 연대장의 증언¹⁸⁾으로 그의 강경진압작전이 어떠했을 지 짐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 진압작전으로 부작용도 속출했다. 당시 군정당국이 발표한 ‘포로가 된 폭도’의 숫자만 봐도 그렇다. 1948년 5월 27일 유동열통위부장이 발표한 ‘포로’는 3,126명이였다. 그런데 이 포로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6월 10일에는 6,000명에 이르렀다. 이는 ‘폭도 아닌 폭도’를 잡아들인 것이다.¹⁹⁾

6월 18일 딘 장군의 신임을 받던 박진경대령이 그의 숙소에서 부하에 의해 암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산간 마을을 누비고 다니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의 ‘포로’를 양산해 낸 박진경연대장의 작전은 마을에 있던 수많은 주민들을 산으로 도망치게 했으며, 자신은 암살당함으로써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브라운대령은 기필코 사태를 진압하고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그의 강경진압작전은 실패했고, 선거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후 제주 사태는 한때 소강 국면을 맞는다. 무장대는 8·25 지하선거 준비, 지도부의 해주대회 참가 등으로 조직 재편의 과정을 겪었다. 토벌 수뇌부도 정부 수립과정을 거치면서 느슨한 토벌작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소강상태도 잠시 뿐이었다.

결국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단독정부는 수립되었고, 그 동안 소강상태에 있던 제주도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남한 내 사상성 청소라는 의미에서 제주도는 하나의 희생양으로 떠올랐다.²⁰⁾ 실제로 심상치 않은 징후는 이미 남한 단독정부 수립 직후인 8월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앙당국에서 일대 소탕전 방침을 정하고 응원대를 속속 제주도에 증파했기 때문이다. 8월 25일 비상경비사령부의 ‘최대의 토벌전이 있으리라’는 포고문²¹⁾에 이어 8월 28일 수도권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800명이 제주를 향해 서울역을 출발했다.²²⁾

18) 김익렬, 『실록유고-4·3의 진실』, □□4·3은 말한다』 2권, 전예원, 1994, 345쪽.

19)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536쪽.

20)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2권, 인물과 사상사, 2004, 190쪽.

21) 『제주사태 악화, □□토벌전□□을 재연?』, 『서울신문』, 1948년 9월 3일.

그동안의 소강상태는 향후 다가올 대규모 진압작전의 준비기간으로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것이었다.²³⁾

강경진압작전은 10월 들어 전격적으로 단행된 제주경찰감찰청장의 교체와 제주도경비사령부의 창설로 보다 구체화됐다. 중앙정부는 제주도 출신으로 그동안 온건책을 지향해 온 김봉호경찰청장을 10월 5일자로 사퇴시키고, 그 후임에 평남 출신인 경무부 공안과장 홍순봉²⁴⁾을 발령했다.²⁵⁾ 이는 주요 관리들을 제주 출신으로 등용해 흥흥한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중앙의 방침이 변경됐음을 의미했다.

홍순봉 신임 청장에 이어 제주도민들에게는 극도의 갈등 상대였던 서북청년회도 대거 들어왔다. 서청을 지원하며 강경책을 채택했던 홍청장은 10월 6일자로 부임한 이래 이듬해인 1949년 7월 28일까지 10개월간 최대의 유혈사태 한복판에 서게 된다.²⁶⁾

1948년 10월 11일 경비대총사령부는 제주도경비사령부(사령관 김상겸)²⁷⁾를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제주도경비사령부는 사령관 육군대령 김상겸부대장, 육군소령 송요찬, 보병 제9연대, 제5연대 1개 대대(현 주둔 부대), 제6연대 1개 대대(현 주둔 부대), 제14연대 1개 대대(10월 20일 여수 출항 증원), 해군소령 최용남 부대와 제주도 경찰경비편대장 청장 홍순봉부대도 본 전투에 참가하였다.²⁸⁾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창설한 지 6일 만인 1948년 10월 17일 제9연대장 송요찬²⁹⁾은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했다.

22) 『경관 응원대, 제주도에 파견』,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29일.

2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261~262쪽.

24) 홍순봉은 평남 출신으로 일본의 괴뢰정권인 만주국의 고위 간부로 근무했던 대표적인 친일경찰로서 강경토벌과 집단학살의 책임자였다. 그는 반민특위 파동의 과정에서 헌병대로 피신하여 헌병학교장까지 역임하고 치안국장에 올랐다. 양봉철, 『제주경찰의 성격과 활동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2, 9쪽.

25) 『제9경찰청장 경질』, 『조선일보』, 1948년 10월 6일

26)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 489쪽.

27) ‘제주비상경비사령부’는 ‘4·3’ 발발 직후인 1948년 4월 5일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조직된 경찰의 조직이다. 반면에 비슷한 명칭인 ‘제주도경비사령부’(사령관 김상겸 대령, 1948년 10월 11일 창설)나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유재홍 대령, 1949년 3월 2일 창설)는 군대 조직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262쪽.

28)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 일지』 제2집, 1948년 10월 11일

본도의 치안을 파괴하고 양민의 안주를 위협하여 국권 침범을 기도하는 일부 불순 분자에 대하여 군은 정부의 최고 지령을 봉지(奉持)하여 차등(此等) 매국적 행동에 단호 철추를 가하여 본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민족의 영화와 안전의 대업을 수행할 임무를 가지고 군은 극렬자를 철저 숙청코자 하니 도민의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협조를 요망하는 바이다. 군은 한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렬분자를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기간 중 전도 해안선부터 5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차(此)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임. 단 특수한 용무로 산악지대 통행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 청원에 의하여 군 발행 특별통행증을 교부하여 그 안전을 보증함.³⁰⁾

제주해안은 포고문이 발표된 다음날인 10월 18일 즉각 봉쇄됐다. 해군은 7척의 함정과 수병 203명을 동원해 제주해안을 차단했다.³¹⁾ 이때부터 제주도는 고립무원의 섬이 되었다. 한편 제5여단장으로서 제주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던 김상겸대령은 사령관에 임명된 지 8일 만에 제5여단 예하 부대인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이에 대한 문책을 받아 파면되었다.³²⁾ 이에 따라 송요찬 9연대장은 김상겸 후임으로 제주도경비사령관까지 맡게 돼 제주경찰과 해군 함정을 휘하에 두는 명실상부한 진압군의 총 책임자로 등장했다. 정부의 초 강경진압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제주도의 무장대는 조직을 재편성해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무장대는 10월 24일 이덕구 명의로 이승만 정부에 선전포고하고, 토벌대에는 호소문³³⁾을 발표하는 한편 경찰과 경찰 가족, 우익

29) 송요찬은 일본군 지원병 출신이었다. “그들이 일본군 지원병이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입대한 군인’이란 점. 기이하게도 송요찬 연대장과 교체되는 2연대의 함병선(중장 예편) 연대장도 일본군 지원병이기는 마찬가지다. 해방 직후 모병 과정에서도 이런 친일 성향이 있는 경력자는 배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한때 일었다. 그러나 ‘경력자’를 중시한 미군정은 이에 대해 하등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제주도 진압작전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전투경험 능력을 높이 샀다고 볼 수 있다.”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3권, 전예원, 1995, 202쪽.

30) 『무허가 통행금지, 제주 송연대장 포고』, 『조선일보』, 1948년 10월 20일.

31) □□국회속기록』, 제1회 제124호, 1948년 12월 8일

『안도하라! 국군은 엄존, 반란 사건의 전모,李국방장관 국회서 설명』, 『국제신문』, 1948년 12월 9일.

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미정규전사』, 1988, 61쪽.

33) 金奉鉉, □□濟州道 血の 歴史□□, 東京, 1997: 노민영역음, □□잠들지 않는 남도□□, 운누리, 1988.

인사에 대한 습격을 벌여 인명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³⁴⁾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했다.³⁵⁾ 토벌대의 전면적인 대계털라전을 암시하는 것으로 중산간 마을 소개와 초토작전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정부는 무장대를 주민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킨다는 구실 하에 철저한 삼광작전을 실시하여 전 섬을 ‘무인촌’, ‘불모의 땅’으로 바꾸고 도민을 유리결식의 비극으로 몰아넣었다.³⁶⁾

한편 중산간 사람들은 해안마을로 순순히 내려가는 이들도 있었지만 죽어도 마을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도 있었다. 집과 농토, 애써 키운 소나 말이 아까워 인근 야산으로 피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무장대측 숫자는 대폭 확대되었고, 산에서는 피난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강위옥(작고)은 100~200명을 관리하는 피난민책이었다.

내가 한라산에서 피신시키는 책임자였어. 1년? 한 2년. 처음에는 부락에 사람들 살고 할 때는 밤 같은데, 왔다갔다하고. 먹을 것도 갖다 먹고. 나중에는 그게 안되니까, 100명이나 200명이 모여 살았지.³⁷⁾

이승만 대통령의 제주도 해결에 대한 의지는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시정일반에 관한 유시의 건(대통령) :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준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³⁸⁾

207~208쪽, 재인용

34) 소개작전이 실시가 되자, 이에 대응하는 무장대의 대공세가 있었다. 48년 11월 28일 위미, 남원마을 대습격, 12월 3일 세화리 대습격, 49년 1월 1일 오등리 죽성군주둔지 습격, 1월 12일 의귀리 군주둔지 습격 등.

35) 대통령령 제31호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 『관보』, 제14호, 1948년 11월 17일.

36) 노민영역음, □□잠들지 않는 남도□□, 온누리, 1988. 214쪽

37) 강위옥(작고), 제주시 월평동, 2002년 6월 5일 자택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제주 4·3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는 지시였다. 학살의 방식도 총살, 생매장, 수장, 입산자 가족 및 마을주민들에 대한 보복적 학살인 대살(代殺) 등 히틀러의 유대인 가스학살과 비견할 정도로 갖가지 학살이 동원되었다. 미국은 이 기간 중 사망자가 1만 5천명 이상이었고, 그 80%가 토벌대에 의한 것이었으며, 민간인 대량학살 작전으로 무장대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평하고 있다.³⁹⁾ 특히 11월 중순 이전에는 주로 젊은 남성들이 희생된 반면 강경진압 작전 시 토벌대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총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2. 제주 4·3전략촌의 형성

제주 4·3전략촌 형성의 전초전은 1948년 10월 17일 9연대장 송요찬의 ‘해안에서 5km이상은 적성지역’이라는 포고령에서부터이다. 이어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중산간 일대 초도화 작전이 전개되었다. 9연대는 갑자기 마을에 들어 닥쳐 보이는 대로 살상하고, 불태우고,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이 무조건 ‘떠나라’였다. 소개작전을 완료한 직후에 작성된 주한미군사령부의 기록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모든 저항을 없애기 위해 모든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유격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했다. 학살의 대부분은 제9연대가 점령한 1948년 12월까지 자행되었다. (중략) 섬에 있는 주택 중 약 1/3이 파괴됐고, 주민 30만 명 중 1/4이 자신들의 마을이 파괴당한 채 해안으로 소개당했다.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45개 마을과 부분적으로 파괴된 43개 마을로

38) 『국무 회의록』, 1949년 1월 21일.

39) 김동만, 『제주 4·3항쟁 진압작전과 주민학살』, □□제주4·3연구소와 역사문제연구소 공동 ‘4·3학술기행’ 자료집□□, 1994

4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293쪽.

부터 피난민들이 해안 마을의 수용소로 이동해왔다.⁴¹⁾

한편 무장대는 무차별 초토화 작전의 보복으로 우익 마을들을 공격했다. 이에 소개당한 주민들과 해안 주민들은 9연대에서 교체된 2연대의 명령에 따라서 둘러 성담을 쌓기 시작했다. 지역별로 축성 시기는 차이가 있으나 본격적으로는 소개 작전과 연대 교체가 완료된 1949년 1월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제주 4·3전략촌을 두른 성담은 폭 3.5~2m, 높이 3.5~4m의 거대한 성곽이었고, 소개 온 중산간 마을 사람들과 해안마을 사람들 동원 단시일 내 완성시켜 갔다.

다음은 지연부(작고)가 생전에 남긴 남군 안덕면 ‘화순리 민보단 경비 활동’에 대한 기록 중에 축성작업과 관련된 기록이다.

민보단이 처음 한 것은 지서 주변을 돌담으로 방호벽을 쌓은 일이었다. 주민들을 동원, 높이 5m, 폭 3.5m의 축성을 한 뒤 15m 간격으로 망루 7개소를 설치했다. 그 해 겨울에는 화순 마을을 산 쪽과 차단하기 위해 마을 주변에 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 성담은 마을 동쪽 속칭 도살장에서 시작하여 국민학교 북쪽 신사터 ~ 서동네, 속칭 메마르 ~ 마을 남쪽, 속칭 동태동산에 이르기까지 장장 1,500m에 달했다. 이 성은 폭 2.5m, 높이 3.5m로 쌓여졌으며 50m간격으로 망루 17개소가 설치되었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어린 고사리 손에서 늙은 할머니 손까지 모두 동원되었다.

다음의 <표-1>은 제주도가 1955년에 4·3 당시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해안 마을에 들어갔던 현황표이다. 한림면, 대정면, 서귀면, 성산면의 기록이 없어 정확하지 않으나, 46개리의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해안 마을에 각각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위의 ‘요집단(要集團)’이라는 말은 요시찰(要視察)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았나 싶다.

4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표-1> 4·3사건에 의한 이재민 요집단 정착 일람표⁴²⁾

읍면		구분	리수(里數)	부락수	세대수	인구수	경지면적
북제주군	제주읍		8	12	312		
	애월면		5	8	489	2,137	
	한림면		·	·	·	·	
	구좌면		3	5	199	808	852
	조천면		8	13	154	719	1,914
	계		24	38	1,154		
남제주군	대정면		·	·	·	·	·
	안덕면		8	8	343	1,573	1,473
	중문면		2	2	57	241	290
	서귀면		·	·	·	·	·
	남원면		10	13	456	2,164	
	표선면		2	2	64	291	
	성산면		·	·	·	·	
	계		22	25	920		
합 계			46	63	2,074		

당초 진압군의 작전 개념은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해변마을로 소개시키고, 해변마을에서는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무장대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것이었다. 이 작전에 대해 이범석 총리 겸 국방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 적정(敵情) : 국군의 맹렬한 섬멸전과 식량난 및 병기, 탄약 보급 불충분과 아울러 협력자 멸소(減少)에 따라 무장폭도 현재 근근 50~60명에 불과하나 도민 중 다수가 폭도의 정신적 가담자라는 것은 참 유감사임.

나. 제9연대 장병이 전 제주도내에 주요지점을 확보하며 산간부락 양민을 해안선 도시에 보갑제(保甲制)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주시키며 도내 도로 양측 총림(叢林)

42) 제주도, 『난민정착 (4·3사건 피해상황조사)』, 1955

을 벌채하여 폭도 급습에 대비하며 폭도에 대한 보급선을 완전 차단하는 동시에 폭도에 대한 협력자의 철저한 처단을 단행함으로써 일로 제주재건에 매진중임.⁴³⁾

이처럼 소개령은 다수의 제주도민들이 ‘폭도의 심정적 동조자 또는 협력자’라는 전제 아래,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킨 후 보갑제⁴⁴⁾라는 연대 책임식 주민감시 체계를 구축해 일반 주민과 무장대를 차단시킨다는 것이었다.

소개 및 초토화 작전은 무장대로 하여금 총공세로 대응하게 하였다. 우익마을, 군·경 주둔지, 학교⁴⁵⁾ 등이 있는 마을을 공격대상지로 선포하고 습격해오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해안마을 방어와 무장대와의 완전 차단을 위해 제주 섬에 돌이 이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4·3전략촌성 쌓기를 명령하였다.

당시 언론은 해안으로 제주 도민들을 몰아넣은 후에 1948년 12월부터 시작한 축성 작업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총동원되어 만리장성을 연상케 하는 12만여 m를 축조했다고 보도했다.⁴⁶⁾ 도민들은 만리장성을 연상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役事)인 축성작업에 동원 돼 큰 곤욕을 치렀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도피한 상태에서 주로 여성과 노인, 그리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이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해변의 모든 마을을 성담을 두르고 주민들에게 보초를 서게 함으로써 무장대는 더욱 고립되어 갔고, 이로써 해변마을로 소개한 주민들은 더 이상 무장대 지원 혐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조성됐다. 또한 축성은 무장대를 주민 속에서 골라내기 위한 방책이기도 했다. 거기에 테러분자나 밀고자를 들여보내 주민의 움직임을 세세히 보고하게 하고 경찰로 하여금 엄격히 감시하게 하였다.⁴⁷⁾

43) 『□□국회속기록』, 제1회 제124호, 1948년 12월 8일.

44) 보갑제란 중국의 송명·청 등에 시행한 향촌 조직이다. 송나라 왕안석이 만든 신법으로 주목적은 농촌의 자경(自警) 및 민병제(民兵制)의 원활한 운영 등이었다. 1개의 보갑단위는 100가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었다. 100가구가 모여서 1개의 갑을 이루고, 10개의 갑이 모여서 1개의 보를 이루었는데, 모든 갑과 보는 선출된 우두머리가 감독했다. 각 단위의 우두머리는 치안책임을 맡았으며, 지방의 호적을 기록했고, 중앙정부의 정보원 역할도 했다. 보갑조직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한 19세기 중엽에 쇠퇴하기 시작했다. 1895년 일본은 타이완을 점령한 뒤 반일저항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45) 무장대 습격 피해로 학교소실이 많은 것은 토벌대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재윤(당시 하귀국민학교 교사), 북군 애월읍 하귀리, 2004년 5월 6일 자택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46) 「군정 3년의 유죄, 일부 汚吏에도 책임이 있다, 국회의원 朱基路, 제주답사기(2)」, 『자유신문』, 1949년 3월 22일.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던 함상훈⁴⁸⁾은 4월 말 제주도를 시찰한 후 폐허처럼 남아 있는 마을 모습과 4·3 성담의 모습을 『조선일보』에 기고하였다.

제주도는 원래 돌이 많은 곳이라 시커먼 구멍이 빼곤빼곤 뚫린 큰 현무암들을 쌓고 그 위에 약간 창과 벽을 만든 후 지붕을 하여서 가옥으로 하였으므로 미관상으론 그리 좋지 못하지만 소실된 가옥의 유허(遺墟)에는 오직 돌담만이 시커멓게 우뚝우뚝 서있고 새로 살겠다고 지어놓은 가옥은 주가(住家)가 아니라 토굴 같은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식량이 없고 가옥과 의류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피화(被禍)를 입고 가두에 방황한다. 부락은 모다 두 길의 높이와 한발의 넓이로 된 축성으로 둘러싸였고 부락입구에는 큰 문을 해달아 통행증과 양민증이 없는 통행인은 보초가 절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삼엄한 경비다. 돌이 많은 제주도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제주에서 경력(經歷)을 쌓은 제주도경찰국장 홍순봉씨의 이 묘안은 확실히 전 제주도를 보루화 하였고 제주도를 방위하는데 일대 공헌이 있었다.⁴⁹⁾

9연대와 교체한 제2연대의 제주 진주는 1948년 12월 중순부터다. 2연대는 진주함과 동시 종래의 미온·소극작전을 떠나 적의 최후의 한 명까지 섬멸을 기하는 포위 고립화 작전을 실시하였다. 우선 작전목표를 3단계로 나누어 1949년 1월부터 1월 말일까지를 제1단계로 해안선의 방위태세와 양민의 민심수습에 치중하여 선무공작을 개시하였다. 제2단계는 2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에 양민의 불안 공포감을 덜기 위하여 동족상전을 회피하는 의미에서 뼈라 살포로 반란자 귀순공작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양민 귀순자로 구성된 평화사절단을 귀순권고자로 두어 한라산 무장대 가까이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소식이 묘연해짐에 따라 그동안 온건 완화작전을 취하던 국군은 최후의 결의를 하게 되었다. 제3단계로 무력소탕 작전에 돌입하고 3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의 일대 섬멸전을 전개 하였다. 소탕전에 들어간 국군은 먼저 적군의 전후좌우의 후원부대를

47) 노민영, □□잡들지 않는 남도□□, 온누리, 1988. 220쪽.

48) 함상훈은 1949년 5월10일 제주도 재선거에 민주국민당 북군 갑구 후보자였고, 당시 2위를 했다.

49) 「제주사태의 진상, 함상훈(상)」, □□조선일보□□, 1949년 6월 2일

차단키 위하여 먼저 해안선에 후퇴한 다음 착착 포위작전으로 축소하면서 산림 지대로 돌진하는 한편 점령지역에 대한 선무공작을 확대 전개키 위하여 민보단 강화, 학생훈련 군 보도대를 동원하여 촉진성과를 보게 되었다.⁵⁰⁾

이 시기는 군·경·민 합동대토벌기로 한라산을 빙 둘러 올라가면서 무장대를 색출하는 빗질작전, 토끼몰이 작전이 전개되었다. 해안마을에 있는 남자라면 이 작전에 참가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토벌은 다 갔어. 늙은이들도. 나는 특공대는 아니었어. 특공대는 경찰들과 다니면서 중산간을 돌아다녔어. 나는 일반인으로 따라 간 거고, 부락 사람 전 동원이었어. 경비서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경찰관들의 뒤를 따라서 전부 올라가는 거지. 산으로. 자주는 아니고 몇 번 가봤을 거야. 산에 경비하는 경찰관들 합동으로 조근조근 누벼서 올라갔어. 그렇다고 폭도 잡아질 것인가 가시자왈이고 조근조근 누벼서 주~욱 올라갔지. 철창 들고 총은 기동대하고 경찰관들이 들었어.⁵¹⁾



3. 제주 4·3전략촌의 역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무장대 접근 차단

제주 4·3전략촌은 무장대와의 접근 차단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다. 혈연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제주도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무장대와 주민간의 밀접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시급했다. 무장대들은 식량, 은신처, 보급품, 정보를 포함해 자신들의 병참 지원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역 민간인들에게 의존하였다. 무장대들은 또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라질 수 있는 ‘인간 위장’ 형태로 민간인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 역사상 게릴라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전략가 가운데 한명인 마오쩌둥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50) 「제주도 현지 보고(2)」, 『경향신문』, 1949년 6월 29일

51) 강갑능, 북군 애월읍 용흥리, 2005년 5월 7일 자택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게릴라전은 기본적으로 인민들로부터 나오고, 인민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동정심과 협력에서 유리되면 존재할 수도 없고, 번영할 수도 없다. 많은 인민들은 게릴라들이 적의 배후에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신념은 인민과 부대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관계의 이해 결핍을 보여준다. 전자는 물과 비유할 수 있고, 후자는 그 속에 사는 물고기와 비유할 수 있다.⁵²⁾

이러한 관계는 게릴라전의 약점일 수도 있다. 자기 방식대로 게릴라들과 싸우기 보다는 게릴라 반란을 저지하기로 결정한 정권들은 게릴라들을 주민들의 지원 기지와 단절시키기 위해 고안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프랑스의 대게릴라전 이론가로서 알제리나 인도차이나 대게릴라전에 참전 군인이기도 한 로저 트린퀴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게릴라에게 거의 날마다 식량 요구품을 보급하는 자는 바로 주민이다. 게릴라에게 가끔 탄약을 갖다주는 이도 바로 주민이다. 주민은 게릴라에게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그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군대의 이동은 주민을 피해갈 수 없다. 게릴라에 대한 어떠한 위협이라도 충분한 시간 안에 게릴라에게 전달된다. 때때로 주민의 집은 게릴라가 위협에 처하였을 때 피할 수 있는 피신처이다. 그러나 지형과 주민들에게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또한 게릴라의 약점이다. 보다 강력한 잠재적 힘을 가진 우리는 지형과 지지 - 주민 - 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게릴라를 굴복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⁵³⁾

실제 마을의 민보단장인 경우 이중생활에 시달린 곳이 많았다. 그래야만 마을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다. 그들은 중간에서 무장대 쪽 요구도 부응하고, 토벌대 쪽 경비나 토벌활동, 부식거리 후원 등에도 협조해야 했다. 이는 절대적으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가능했다. 만약 무장대 쪽 지원 혐의가 있으면 마을 전체가 온전치 못했고, 그렇다고 경찰 쪽만 지원하면 무장대 지목을 받고 목숨이 위태로웠다.

52) Mao Tse-tung, *On Guerrilla Warfare* (New York: Praeger, 1961), pp. 44, pp. 92~93.

53) Roger Trinquier, *On Guerrilla Warfare* (New York: Praeger, 1961), pp. 44, pp. 92~93.

자위대장도 하고, 향토방위대장도 하고, 민보단장도 했다. 제일 먼저가 민보단장이야. 오라리를 경비 초소하는 것이었다. 오라리 단부 대한청년단장도 했다. 북교에서 훈련도 받았다. 대한청년단이 정해년 10월인가 부터 해서 무자·기축년까지 있었다. 무자년에는 민보단장도 하고 자위대장을 했다. 54)

정부군은 중산간 마을 소개 작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무장대 지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더구나 1948년 11월부터 시작되는 무장대의 대공습은 해안마을을 둘러싸는 별도의 방어 시설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부군은 ① 무장대의 완전 차단을 위해 도민들을 한 곳으로 가둬 놓고, 혐의자를 색출해 낸 후에 일일이 통제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했다. ② 순수한 양민들을 이용한 경비 활동이 필요했다. ③ 해안 마을을 방어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다. 이것이 제주 4·3전략촌성이 대두되게 된 원인이었다.

이러한 성을 쌓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어린 고사리 손에서 늙은 할머니 손까지 모두 동원되었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어려운 도역을 감내해야 했다. 성이 완성 되자, 무장대와 주민이 완전 분리되어 해안마을 사람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군인들이 와가지고 마을에 폭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을 쌓으라고 말이며, 그때부터는 군인이 낮이고 밤이고 할 거 없이 마을을 지키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한 4m 이상 높게 돌담을 이중으로 쌓아 올렸어요. 마을을 뺨 돌아가면서. 중산간 부락은 다 불태워버리고 민간인들을 바닷가로 소개시켜부니까 중산간 마을이란 건 제주도에 거의 없었어. 몽땅 다 불 태와 부니까. 성을 쌓으니까 산에 올라갈 사람은 산에 올라가불고, 부락에 남은 사람은 부락에 남고, 전이는 군인이 온다 하면 다 도망갔어요. 보이면 무조건 잡아갔으니까, 성담 쌓고부터는 도망갈 필요가 없었죠.55)

54) 송주형, 제주시 오라동, 2005년 10월 12일 자택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55) 김자봉,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2005년 11월 13일 일도동 자택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중종 주민들의 재정착과 관련하여 채택되는 대게릴라 전술은 곡식, 가축, 집, 그리고 게릴라들의 활동지역에서 기타 중요한 기반시설들에 대한 체계적인 파괴였다. 대게릴라의 '초토화' 전략은 3가지 주요 기능이 있다. 첫째, 게릴라들을 살해하거나 굴복하도록 굶기면서 이들과 이들의 지지자들로부터 식량과 은신처를 빼앗는 것이다. 둘째, 지역 주민들을 정부가 통제하는 재편수용소로 강제 이주시키고 난민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단념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전략은 게릴라들을 지지하는 혐의가 있는 마을에 대해 가혹한 처벌이나 저지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⁵⁶⁾

2) 주민 통제

소개 작전 후 중산간 일대 성공적인 초토화 작전을 수행한 정부는 해안 마을에 내려 온 주민들을 한 곳에 수용한 후 선별 작업을 실시했다. 이 작업에서 미리 작성된 명단에 가족이 포함되어 있거나 소개 시 내려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수용을 하고 양민증 발급을 연기했다. 이때 양민증은 '선량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사를 결정짓는 신분증이나 다름없었다.

'양민증(良民證)'이 언제 발급됐는지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양민증을 통해 유추해 볼 뿐이다. 첫 발급은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소개 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해안마을로 집단 이주되는 시기로 보인다. 그 후 발급처가 변경되면서 수시로 발급되었다. 그러나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은 1948년 5월에 이미 양민증이 발급 됐었다고 했다. 당시 통위부 정보국 핵심간부였던 김종면중령은 양민증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48년 5월 하순께로 기억됩니다. 조천면 교래리로 가는 쪽에 '바늘오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폭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원들

56) Benjamin Valentino, *Final Solutions: Genocide and mass killing in 20th Centur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pp. 202~205.

을 이끌고 그곳에 가 보았더니 맨 부녀자들만 있었는데 그 숫자가 몇 백 명은 족히 됐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토벌대가, 경찰들이 와서 다 죽인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피신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제주비행장으로 데리고 와서 천막을 치고 수용시켰습니다. 당시 행정력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아침에 기상, 애국가를 부르게 하니까 그 부녀자들은 서슴없이 ‘붉은 깃발···’을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공산당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지문을 찍도록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지문을 찍었으니 전부 나타난다. 그러니 이젠 산에 오를 생각을 아예 말라’고 엄포를 놓기 위해서 었습니다. 그러면 양민증을 처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⁵⁷⁾

필자는 양민증의 초기 단계인 ‘(석방)증명서’를 김종면중령은 양민증으로 오해한 것이 아닌가한다. 하지만 이 역시 양민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통위부 참모총장 이형근대령의 담화를 통해서 ‘증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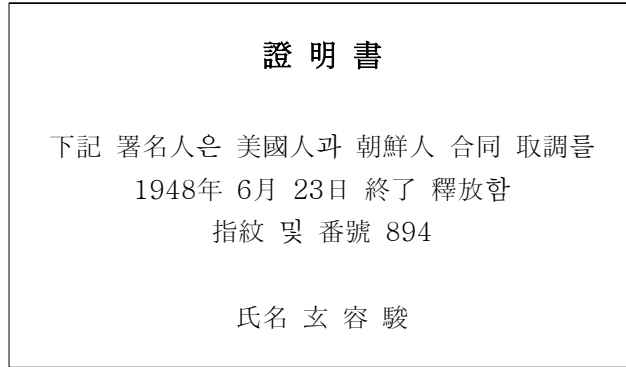
폭동이 진정되지 않아 경비대와 경찰이 출동하고 있으나 그 임무에 관해서는 현지 군경 사이에 협정으로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고 경비대는 오로지 작전행동만을 하고 있으며 경비대와 경찰간에 서로 지휘 명령을 받는 일은 전연 없다. 현재 포로와 귀순자들은 비행장에 집결시켜 놓고 폭도와 양민을 엄격히 구별하고 폭도는 법에 의하여 처단을 받도록 될 것이나, 일단 군에서 조사한 결과 완전히 양민이라고 인정되어 증명서를 교부 받은 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재조사하는 등의 일은 절대로 없기로 하였다.⁵⁸⁾

현용준은 “48년 단오 명절 뒷날, 밭에 보리베리 갔다가 낮을 든 채 군인에게 잡혀서 죽성을 거쳐 농업학교로 포로인계되어 수용되었다. 10여일을 보낸 6월 23일, 농업학교 무슨 건물에 가서 미국군인 3명, 한국군인 2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취조를 받았다. 주소, 이름, 직업, 잡혀온 경위 등을 물어 본 후에 지문

57)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3권, 전예원, 1995년, 143~145쪽.

58) 『군은 작전 경찰은 치안, 소요처리에李참모총장담』, □□조선일보□□, 1948년 6월 4일.

을 찍으라고 명함만큼 한 종이를 내 주었다. 바깥에 나와서 그 명함 같은 종이를 보니 석방 ‘증명서’였다.”고 했다. 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이 증명서는 현용준이 최근까지 보관해 오던 증명서로 ‘미국인과 합동 취조’라는 부분은 미국의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서라고 할 수 있다.⁵⁹⁾

계엄시기 양민증은 가로 12cm, 세로 8cm 크기로 이름, 나이, 성별,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록해 놓고, 사진 부착과 좌·우무인을 찍도록 했으며, 발급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다. 앞면 왼쪽에는 군수, 면장, 구장, 반장의 날인을 차례로 받도록 하여 몇 단계의 신분 확인절차 과정을 거쳐 발급하게 되어 있다. 발급처는 계엄지구 사령부 산하 경찰대로 사령관 홍순봉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뒷면에는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이 증명서는 타인에게 대부함을 엄금함, ② 이 증명서를 분실 혹은 파손 시에는 각 단위 책임자를 통하여 재 배부를 제출할 것임, ③ 이 증명서는 언제나 소지해야 하며 군경이 요구할 때는 즉시 보여야 함, ④ 이 증명서를 소지 하지 않은 자는 양민으로 취급하지 않음, ⑤ 이 증명서는 때때로 검사를 하며 만약 검사 시까지 제출치 않고 소지치 않은 자는 부정처분한 것으로 인정하여 엄벌에 처함, ⑥ 우기 위반자는 군경에 위

59) 현용준, 『한라산을 오르듯이』, 각, 2003. 177~186쪽.
_____, 제주도 용담동, 2005년 10월 18일 채록

반자로 인정하여 엄벌에 처함이라 되어 있다.

양민증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살벌하다. ‘양민증이 없으면 양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당시 정부군의 발표에서 제주도민을 대하는 정부군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양민증을 갖지 않으면 모두 ‘빨갱이’나 ‘폭도’로 취급한다는 엄명이었다. 이런 양민증 발급은 무장대와 일반 주민들을 명백히 구분하자는 의미가 있었지만 주민들을 분리, 통제하고, 무장대에 부역한 사람을 색출, 처형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1949년 3월에는 새로운 양식의 양민증이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발급처는 제주 경찰국 홍순봉 명의로 발급되고 검열관서는 2연대 헌병대장 육군대위 조영구로 되어 있다. 이때의 양민증은 계엄 시 양민증과는 달리 6단으로 접게 되어 있으며, 한면의 크기는 가로 6cm, 세로 9.5cm, 전체 길이 33.5cm이다. 전면에 ‘良民證’이라 쓰여 있고, 2면은 사진 부착과 좌무인란, 본적, 주소, 성별, 직업, 씨명, 연령, 호주 및 관계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3면은 발급번호, 일련번호, 등급관서, 제주 경찰국장 홍순봉, 검열관서 제주도 제2연대헌병대장 육군대위 조영구로 되어 있다. 나머지 8면은 기사란(記事欄)으로 여행 및 통행시 제주경찰서(또는 각 지서)의 허가 사항을 기록하게 하였다. 양민증의 뒷면 1면에는 ‘주의’가 적혀 있다. ① 此 양민증을 필히 휴대할 事, ② 此 양민증은 신분을 보증하는 것임, ③ 여행시 空欄의 허가를 得할 事, ④ 양민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시는 엄벌에 처함, ⑤ 양민증을 분실시는 最奇官署에 岬出재교부를 受할 事, ⑥ 此 양민증은 15세 이상 제주도민에 한함 등 조금은 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민증은 통행증을 겸한 신분증이었다. 양민증에 ‘기사란(記事欄)’⁶⁰⁾을 일일이 어디에서 어디, 몇일 부터 몇일 까지, 장소며, 기간 등이 수록되어

60) 1949년 3월1일자 신촌리 주민에게 발급되었던 한 양민증 ‘기사란’에는 1949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수차례 통행허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일부이다.

“自 8월 13일, 至 2월 12일, 自 제주읍 至 조천면 신촌리, 조부 병간호 次 右 證明함 4283년 8월 13일 제주 경찰서장 代”(제주교육박물관 소장)

있다. 특히 인근 마을 밖으로 농사짓기 위해 출입하는 것 까지도 허가를 받았던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렇듯 양민증은 도민들에게 생명을 잇는 끈과 같은 존재였다. 소개민들 중에 양민증을 발급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태였으며 이들은 별도의 수용소에 들어가 몇 달 간 수용생활을 감수해야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양민증이 없다는 것은 마을 안에서 요시찰인(要視察人)을 뜻하는 것이었다. 일단 보초 근무에서 제외되었고, 민보단이나 우익단체에 가입할 수 없었다. 산에 좁쌀 한 되라도 올린 사람은 자수하고 3일 동안 토벌 갔다 오면 ‘양민증’을 발급해주겠다고 하여 차에 태워가서 집단 학살 한 경우도 있다.⁶¹⁾

1950년 8월 29일 제주도지구계엄사령관(해군대령 신현준)은 ‘계엄실시에 관한 포고(9호)’를 발표하고 도민의 도내 여행 제한을 해제한다고 하였다.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치 않으나 단 양민증 및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는 자와 도외 여행에 관하여서는 종전과 같다고 발표했다.⁶²⁾

1952년 경찰국장 윤석렬은 치안 수용의 방책으로 실시하여 오던 도외 여행자에 대하여 경찰서 계출 및 증명제는 민중의 편리를 일층 도모하고 각종 폐단을 시정하는 견지에서 폐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관련하여 현재 도민증 발급자에 대해서도 급후 재심사하여 가급적 발급되도록 강구하겠다고 하였다.⁶³⁾ 이 내용으로 보아 1952년 초부터 양민증이 아니라 제주도 도민임을 증명하는 ‘도민증’⁶⁴⁾이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3) 연대책임식 경비

소개 작전이 끝나자 군인과 경찰들은 해안마을로 내려온 소개민들 중에서 우

61) 대표적인 것이 1948년 12월 21일 박성내 집단학살이다.

62) 「계엄실시에 관한 포고(제 9호)」, □□제주신보□□ 1950년 8월 30일

63) 「밀도살·밀주 엄중 단속, 여행증명 전폐,(국민병은 제외), 부락민의 지서 등 유지비 각출 전폐,尹경찰국장담」, □□제주신보□□ 1952년 2월 22일

64) 도민증은 가로 6.5cm, 세로 9.3cm로, 총 4면으로 되어 있다. 1면에는 위쪽 가운데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 ‘제주도 도민증’이라 한글로 쓰여 있고, 산, 등대, 갈매기가 바탕에 그려져 있다. 2면에는 신장, 특징, 병역관계, 소속정당, 한글해독여부, 혈액형 등의 기입란과 본적, 출생지, 현주소, 호주 또는 세대주 성명, 직업,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이 기입되어 있다. 3면에는 우좌모인란과 검인란, 주의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4면은 제주도지사와 거주지역 경찰서장 인이 찍혀 있다.

선 ‘도피자 가족’과 ‘폭도’ 색출 작업을 했다. 분류 작업이 끝나면 학살터나 임시 수용소로 보내졌다. 나머지 일반민들에게는 양민증이 발급되었고, 성담 쌓기에 동원되었다. 제주 4·3전략촌에서의 생활은 성담 경비를 위한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성안 전주민이 총 동원되어 밤낮 구분 없이 24시간 경비를 섰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시야 청소를 위해 주변의 나무를 잘라라, 성담 주변에 성호를 파라, 성담과 호에 갖가시나무 같은 가시나무들을 잘라다가 넣어라 등의 고된 노역이 계속 주어졌다.

주민들은 자체 방어 조직을 공고히 하고 매일 밤낮으로 경비근무에 만전을 기했다. 당시 민보단 활동과 성담 쌓기, 보초 근무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안덕면 ‘화순리 민보단 경비 활동’⁶⁵⁾에 관한 것으로 당시 민보단의 조직과 활동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을경비 임무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에게 모두 부여되었다. 자경대⁶⁶⁾ 조직도 대대·중대·소대·분대의 편제로 재편되었다. 민보단이 처음 한 것은 지서 주변을 돌담으로 방호벽을 쌓은 일이었다. 화순 민보단의 야간 경비 근무조에는 매일 177명이 동원되었다. 배치인원별로 보면 △지서 망루 및 정문 6개소 근무에 30명 △마을 망루 17개소와 문 5개소, 중요 요소 3개소 근무에 125명 △망루대 경비 순찰원 8명 △전주 순찰원 6명 △근무확인 순찰원 8명 등이다. 주간 경비 근무조에는 50명이 배치되는데 △마을 5개 문에 30명 △마을 외곽경비 12명 △지서 경비근무 4명 △본부 사무실 대기조 4명 등이다. 주·야간에 동원되는 인원이 222명에 이르렀다. 지서에는 비상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었다. 민보단 단원들은 밤낮으로 죽창과 철창을 들고 보초를 섰다. 화순 민보단의 경우 제1중대가 하루 경비를 서면, 다음날에는 제2중대가 보초를 서는 격일 근무제를 채택했다. 사이렌이 울리면 민보단원들은 수분 내로 집결해야 한다.⁶⁷⁾

65) 민보단 안덕면 화순리 대대장을 지낸 지연부(池連富)가 생전에 기록한 것이다.

66) 민보단의 다른 이름인 것 같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불리며 안덕면인 경우 ‘자경대’로 불린 듯하다.

67)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3권, 전예원, 1995, 268~270쪽.

민보단 단원들은 군경 진압작전에 곧잘 동원되었다. 그들은 죽창 등의 빈약하기 짝이 없는 무기를 들고 군인이나 경찰관보다 앞서 최전방으로 내몰렸다. 단원들 가운데는 진압작전에 참여했다가 혹은 보초를 서다가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다. 어느 경우에는 무장대와 내통했다는 오해를 받거나 근무가 태만하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의 총탄에 사살되는 일도 있었다.

화순리 자경대 제1중대장을 맡았던 강문팔은 성문 보초서다 잘못 걸리면 죽음을 면치 못했다며 당시 겪었던 일을 말했다.

바로 여기에 성담이 있었어요. 땡 둘러서. 그러니까 동문, 서문하고, 문이 세 개 일 거요. 그런데 그 도피자 가족으로 한덕명이라고 있었어요. 상창 ‘오피기 모루’ 출신인데, 그 사람이 어디 결혼을 했냐고 하면 박영호 누이동생한테 결혼을 했어요. 그 한덕명이 산에 입산하자 그 가족이 감시도 받고 타격도 많이 받았어요. 그 처남 되는 사람도 잡아다가 고문하고 하니까, 미쳐서 나중에 죽었어요. 그때 거기 세 사람이 당번 했어요. 장주언이, 강문학이, 그리고 하나는 임똥(임춘택)이에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날 아무래도 그 집(한덕명의 처가댁)에 연락이 들어온 모양이죠. 그것이 지서에 연락되었는지 이제 너네가 연락했다고 해서, 지서에서 잡아다가 패니까, (둘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장주언이는 어떻게 살았냐고 하면, 장주언이는 바로 지서 정문에 섰었어요. 그런데 지서장이 김광철이라고 이북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장주언 부친하고 통하고 하니까 거기는 무난하게 나오고 그 두 사람은 매로 죽인 거예요. 김광철이었어요. 철경.⁶⁸⁾

다음은 북제주군 조천면 선흥리 낙선동 4·3전략촌에서의 경비 업무이다.⁶⁹⁾ 야간 보초업무는 아홉 개 초소마다 5교대로 이루어졌다. 근무조는 각 초소마다 5명씩, 매일 밤 40명이 동원되었고, 외곽 경비 각조 3명씩, 2개조가 동원되었다. 초소 배치는 정문보초는 특공대, 1초소 의용경찰, 2초소 의용경찰, 3초소 남자노인, 5초소 여성, 6초소는 노인과 의용경찰 1명, 7초소 여성, 8초소 남자 노인과

68) 강문팔,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2004년 6월 5일 자택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69) 필자가 북제주군 조천면 선흥리 낙선동 주민인 고희봉, 김내수, 부양하 등으로 부터 구술 채록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의용경찰 1명, 9초소 여성 등으로 배치되었다. 정문은 서(西)벽에 있었고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았으며 24시간 보초를 섰다. 정문에서는 출입하는 사람마다 양민증이나 통행증을 확인했다. 보초업무 담당자에게는 대창, 특공대에게는 수류탄 1개와 철창이 지급되었다. 수시로 암호가 전달되었고, 여성이라고 보초업무에 예외일 수 없었다. 여성 보초막은 세군대(5, 7, 9초소)나 되었고 여성대한청년단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함덕리나 조천리에 가서 정식 훈련도 받았다. 여성에게는 대창만 지급되었다. 비상훈련에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곤욕을 치렀다. 날마다 다른 암호가 하달되었고 암호는 바로 생명선이었다. 민보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역주민들이 담당했고, 부녀자들은 토벌대나 경비조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로 시달렸다.

제주 4·3에서 보감제 조직은 1948년 4월에 조직된 향보단과 그 뒤를 이은 민보단에 나타난다. 그 외 자경대, 민병대 등으로 이름이 달리 불리기도 했다. 민보단은 가장 중요한 경찰의 외곽조직이 되었다.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상당수가 입산했거나 다른 곳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민보단을 구성할 청년들이 절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15세 이상이면 민보단의 이름 아래 향토방위의 의무가 부여되었다. 화북동에 양중윤은 아기를 업고서라도 나가야 했던 야간 경비 활동을 기억하고 있다.

이디오란(화북 2동 거로마을) 성을 쌓랜 허난 일주도로 가까운 데로. 알동네가 마을이 어서네 집이 어신디 일주도로 가까운디 허여야 차가 왕 무션 일이나도 해진텐 행 일주도로를 가까운데 해영. 애기 늑져동 강 오른 울멍... 자당 깨나민 시방 쉰 일 곱 난 아덜이 경허난, 그 세끼가 어멍 어서라면 하른 못 살아. 동네 하나 별령허믄 업영도 가고, 성담에 강 (성담 옆에 기대듯)도라정 아덜도 자고 나도 강 줌(잠)이... 영 바리당 보민 줌이 영...(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자들도 순 당번. 순번으로 며틀에 한번씩. 막에 세 사람 썩. 여덥막사 열두막사 허난, 한 막에 세사람씩 경해연 허민 두시간씩 세시간씩 해연 와분 다음엔 남자들이 허고. 남자들 군대가고 젊은 사람들이 하지를 못 하지게. 청년단이고 무시거고 노인네. 경정 못할 남자어른들. 할아

버지들 둘이 해영 순찰돌고 허영 몽둥이로 돌을 탁 두르리른 “예! 아무 일 어수다!”
허고. 암호. 순찰 돌고. 다시 저 막에 강 딱 암호... 골매 돌리멍 돌아가든 그 어른이
모영 가든 또 탄사람이 돌고 순번으로. 경행 밤새낭 하고. 우린 거기서 경허단 (새
벽)서너시 되든, ‘이제란들 가!’ 허든, 오랑 물질어당 밥 허영 먹어살거 아니.⁷⁰⁾

1953년 7월이 되면 부녀자들 야간경비서 해제한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⁷¹⁾ 각
리별로 여성들의 야간경비 해제 날짜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나 한국전쟁이 끝
나고 전쟁터에 나갔던 남자들의 돌아오면서 여성들의 경비 활동은 중단된 것으
로 보인다.



70) 양중윤, 제주시 화북동(거로마을), 2005년 3월 28일 자택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71) 「여자를 남자로 교대 강화, 와산리 특동대」 『제주신보』, 1953년 7월 2일,
「부녀자를 야간 경비서 해제코 계몽(애월 금덕리)」, □□제주신보□□, 7월 21일.

Ⅲ. 제주 4·3전략촌의 성격 변화와 구조

1. 제주 4·3전략촌의 성격 변화

1) 해안 마을 4·3전략촌 구축

제주 4·3전략촌은 6년 동안 해안마을 전략촌, 중산간마을 전략촌, 산간마을 전략촌으로 변화했다. 제주 4·3전략촌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사항은 구술증언 채록과 마을향토지, 당시 신문자료 등에 의존하여 재구성했다. 필자는 제주 4·3전략촌의 성격을 1948년 12월부터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고 성담이 바로 허물어진 것은 아니었고, 1957년 4월 2일 마지막 무장대 오원권이 잡힐 때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축성 시기는 마을 별로 조금씩 다르나 1949년 1월이 되면 제주도 모든 해변 마을에 성을 두르는 작업이 주민들을 동원하여 이루어졌다. 아마도 군에서 축성 명령이 내려진 듯하다. 해안마을이라도 본 마을과 떨어져 있거나 호수가 작은 마을은 본 마을로 소개를 당했다. 당시 제주도 400여 마을 중 105개를 제외하고 모든 마을이 파괴되었다고 했다.⁷²⁾ 그야말로 4·3 광풍이 몰아쳤던 대학살과 초토화 작전이 전개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제주읍 전략촌은 1949년 1월부터 형성되었다. 제주읍 관내 소개작전은 도남동, 오라 2동 연미마을, 연동 등이 1월 중순까지 마쳐 마무리 되었다. 제주읍 전략촌성은 사라봉에서 도두봉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장성이었다. 사라봉 등대쪽에서 ~ 한국노총회관(변전소 인근) ~ 고산동산(세무서 밑) ~ 도남 우체국 ~ 오라1동(사평부락) ~ 오라 2동(연미 서슬동산)을 감싸면서 명주주택 ~ 도령마루 ~ 정뜨르비행장 ~ 도두2동으로 이어졌다. 그 길이가 8km나 되었다.⁷³⁾ 제주읍 성안에는 도남리, 아라리, 오등리, 연동리, 오라리 주민들이 소개되

72) 「비참한 제주도, 진정한 洪氏 읍소」, 『동아일보』, 1949년 3월 12일.

었다. 그 외 제주읍 동부지역인 봉개리, 용강리, 영평리, 월평리, 회천리 주민들은 화북리나 삼양리로, 제주읍 서부지역인 연동리, 노형리, 해안리는 도두리, 이호리, 외도리로 내려가서 각 마을에 성을 쌓았다.

이순정은 부친이 서청에 의해 돌아가시자 상중이라는 표시로 머리에 하얀 리본을 꽂은 채 성담 쌓기에 갔던 일을 회상했다. 실제 길가의 부인들의 뒷머리에 는 흰 ‘댕기’가 많았다고 했다.⁷⁴⁾

우리도 성 쌓으러 다녔어.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상복해주니까 흰 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 갔어. “왜 너는 일하러 오는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는 하얀 리본을 했느냐?”고 군인이 무슨 뜻이냐고 묻더라고. “이게 뭐냐? 이런 것을 단 사람이 많은데 뭐냐?”고 물어.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상주는 3년간 하얀 치마 입고, 3년 동안 머리에 리본을 달고 다닙니다.”고 했어. 축성작업에는 집집마다 다 나오라고 했어. 어머니는 아프고 언니는 시집가고 동생들은 어리고 나밖에 갈 사람이 없었어. (여중)2학년 때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같애.⁷⁵⁾

오현중학교에 재학시절 성담 쌓기에 동원됐던 신순영은 성담 쌓으러 가는 일이 오히려 ‘즐거운 노역’이었다고 말했다. 제주읍은 호당 동원 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한 10일쯤 땀겨실거라. 근데 그 성담 다루는 것이 아주 즐거운 노역이었져. 뭐냐 여기 저 성담 다루러 나가서 소나무 가지 쳐 와서 왔주게. 땀감이 전혀 없어서 저 부락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했는데. 성담 쌓으러 가면 마지막 풀어 주는 게, 저 사라봉으로부터 행들. 군인이영 경찰이영 총 들렁 밖으로 선에. 요 안에서만 나뭇가지 가져 가랜 허니까 뭐... 인원 할당해세. 희망자가 넘쳐나니까. 농촌에서는

73) 필자가 아래의 증언자들로부터 구술증언을 통해 정리한 것이다.

강좌겸(사라봉으로 변진소 부근, 한국 노총 쪽) 증언, 신순영(사라봉 쪽)증언, 현용준(도령마루쪽) 증언, 송주형(오라동쪽) 증언, 허태현(도남동쪽) 증언 채록

74) 「제주도의 요지읍 모습, 인구 감소 3만여, 주택은 2만여 호 소실」, 『조선중앙일보』, 1949년 6월 28일.

75) 이순정, 북군 애월읍 애월리, 2005년 11월 7일 자택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인력이 모재래서 백프로 동원인디. 제주읍내에서는 한 가구 한사람 밖에 못 나가게 해. 우리는 사라봉 등대 불영 (성담) 싸시네. 나가 작업한 건 완성이 아니고, 굽만 놔어. 굽만. 폭이 약 1m 50cm. 계단 우리 들러온 돌은 깔지 못했어. 어른들 들러온 돌만 깔고. “너네랑 큰돌 들르젠 말양으네 잔돌, 바닷가에 강으네 지영 오라.” 바닷가 말고 돌이 어디셔. 그 사라봉에. 그 밑에 바닷가에 그 돌을 지영 셋길로 지영 올라오 난... 그딘 구루마 할디가 아니여. 완전히 등짐 밖에는. 구루마는 구루마대로 다 징발 당하고. 저쪽 별도내 쪽에서 운반허는 건 구루마허고. 또 일반 사역병들은 바닷가에서 지영 오고.⁷⁶⁾

한림면 역시 9개리를 아우르는 8km~9km의 장성을 쌓았다. 한림면 전략촌성은 폭 4m~3m, 높이 4~5m로 가장 견고하고 거대하게 축성되었다. 한림면 주민들은 돌이 지천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발담 돌까지 전부 허물어내어 성을 쌓았다고 했다.⁷⁷⁾

이윤의 『진중일기』에는 태흥리에 2연대 1대대 2중대(설재련)가 주둔하면서 전투사령부의 지시로 축성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한다.



이 작업은 제주 역사상 가장 큰 작업이다. 부락단위로 일주도로 해안선을 연결하는 큰 공사이다 보니 인력이 많이 필요하여 현지 주민남녀를 막론하고 총동원되어 매일 작업이 이어졌다. 주민의 피나는 노력에 작업 능률은 예상보다 빨랐다. 이 지방은 어디를 가나 돌천지요. 돌이 현무암이어서 가벼우면서도 견고했다. 우리들이 감독 겸 동원책임 의무로 나갔지만 사실상 이곳 주민들의 숨씨와 기묘한 고안으로 작업을 하는 데는 그저 감탄할 뿐이었다. 다만 문과 경비대만을 설계대로 진행할 뿐이며 축성 작업에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했다. 제주도민은 예부터 돌성 쌓는 전통이 있었다. 가옥건축, 조상의 산소, 농작물 경작지 둘레, 목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성 작업을 해온 전통을 이번 작업에 유감없이 실력을 보여줬다. 돌성은 시작된 지 10여일 만에 완축 되었는데 하여간 이 지방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과 극도에 달한 공산도배에 대한 증오심이 이룬 결과였다.⁷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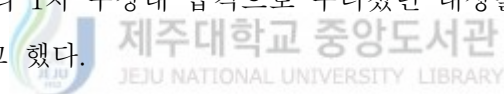
76) 신순영, 제주시 일도동, 2005년 11월 13일 자택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77) 제주4.3연구소 엮음, 『제주항쟁』, 실천문화사, 1991. 268쪽.

이윤은 거대한 축성이 완료된 후 산간부락 주민을 소개시켜 성안 부락에 집단 수용하고 통행을 제한하였다. 또한 야간 통행을 엄금하는 동시에 주민 중에서 극렬분자들을 색출한 후 선무공작 활동도 나섰다. 선무공작반의 일원으로 나가게 되면서는 태흥리, 위미리 2개 부락을 담당하였다.⁷⁹⁾

한편 성읍리는 중산간 마을이면서도 소개에서 면제된 마을이다. 이들 지역이 소개령을 피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부분 무장대 근거지인 산악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이었던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이다. 소개를 면한 마을로는 애월면의 봉성리를 비롯하여 상가리와 수산리, 성산면의 난산리, 삼달리, 신흥리, 중문면의 회수리, 서귀면의 토평리 등이 있었다.

성읍리 주민들은 기존 정의현성의 허물어진 부분을 보수하고 정의현성 안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살면서 빨리 시국이 넘어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9년 1월과 2월 두차례의 무장대 습격으로 다급해진 지역주민들은 기존의 정의현성만으로는 방어가 역부족임을 깨닫고, 시급히 외성을 쌓기 시작했다. 문명옥은 성읍리 1차 무장대 습격으로 무너졌던 내성을 수리하던 중에 두번째 습격이 들었다고 했다.



내성을 수리하고 있는데 습격이 또 온 거라. (경찰은) 우리를 나가서 처리하라며 성 밖으로 내몰곤 (성)문을 닫아 버린 거라. 나하고 강대진을 성 밖으로 내몰았어. 저쪽에서는 총을 갖고 있고, 우린 죽창인데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어? 결국 강씨가 먼저 총에 맞아 쓰러지고 나도 총에 맞았지. 그 사람 일찍 치료 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병원이 있나 뭐가 있나? 그날 저녁에 죽었어. 나도 여기(다리 쪽)에 맞아도 치료 안하고 그대로 놔두니까 자연히 낳았어. 이걸로 후유증이 심해.⁸⁰⁾

1949년 초 제주도 해안 전략촌은 거대한 성담이 둘러져 무장대로부터 만반의

78) 이윤, 『진중일기』, 여문각, 2002, 110쪽.

이윤은 2연대로 제주에 왔던 게 인연이 되어 군 제대 후 제주도에 정착하였다.

79) 이윤, 제주시 연동, 2005년 3월 16일 자택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80) 문명옥, 성읍리, 2005년 10월 13일 자택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이 시기 무장대는 겨우살이 식량 확보를 위해 부락 습격을 자주 했고, 한편으론 하산자가 많아가자 자체 고무추동 하는 시, ‘월성 입산은 행복이로다. 월성 하산은 비겁이로다’를 매일 외웠다고 한다.⁸¹⁾

2) 귀순자·이재민 분산 수용을 위한 4·3전략촌 구축

이 시기는 1949년 3월부터 1954년 3월까지로 초기에는 귀순자와 이재민들을 분산 수용하기 위해 중산간 주요 지점에 제주 4·3전략촌이 구축되었다.⁸²⁾ 그러다가 무장대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자 마을 재건과 토벌활동에 주력하였다.

2연대장 함병선은 1949년 3월까지 3단계 진압작전을 실시하여 해안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귀순공작을 실시 한 후에 무력 소탕·섬멸전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했다.⁸³⁾ 첫 신호가 제주시 동부 8리⁸⁴⁾대토벌전이다. 육해공합동토벌작전으로 제주시 동부지구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 버렸다. 1948년 11월 20일⁸⁵⁾은 불바다였고, 1949년 2월 4일은 피바다나 다름이 없었다. 이날 사살 360명, 포로 130명, 기타 식량 의류 등을 다수 압수하는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2연대의 봉개지구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귀순자와 이재민 분산 수용을 위해 제주 동부 관내 주민들을 동원하여 석성을 쌓게 하였다. 봉개동은 셋동네만 석성을 구축하고 귀순자와 이재민들을 입주케 하였다.⁸⁶⁾ 이는 앞으로 마을 재건과 토벌작전을 병행하기 위한 중산간 4·3전략촌 구축의 시작이었다. 중산간의 4·3전략촌은 무장대의 입지를 좁혀 가는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토벌대의 본부가 있는 해안마을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 역할도 담당하였다.

81) 김민주, 「김민주선생의 4·3 체험담」, 『4·3과 역사』 4권, 각, 2004, 291쪽.

82) 이 시기는 중산간 마을 대표적인 4·3전략촌으로는 선흘리, 대흘리, 광령리, 장전리, 조수리, 서광리, 색달리, 의귀리, 제주시 아라동, 노형동, 봉개동, 도평동, 성산 수산리 등이 있다.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각, (2003~2004)

83) 「제주도 현지 보고(2), 선무로 8000여 명 귀순, 군작전 목표를 3단계로 구별」, 『경향신문』, 1949년 6월 29일.

84) 제주시 동부 8리: 봉개리, 도련리, 용강리, 회천리, 영평리, 월평리, 삼양리, 화북리 등.

85) 봉개동이 초토화된 날, 제주도·제주 4·3연구소, 『제주 4·3유적』 I, 각, 2003, 191쪽.

86) 양태보, 제주시 봉개동, 2004년 7월 15일 자택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증언자는 봉개동 셋동네 재건 날짜를 3월 14일로 기억하고 있었다.

제주시 봉개동은 최초로 '함명리'라는 이름이 붙여지며 중산간 마을 재건 명령이 내려진 곳이다. 2연대는 이 지역을 완전히 소탕한 후 함병선연대장 이름의 '함'자와 작전참모 대위 김명의 '명'자를 따서 이름을 '함명리'로 바꾸어 재건을 명령했다.⁸⁷⁾ 이후 1949년 한 해 동안은 중산간 마을 주요 지점에 4·3전략촌이 건설되었다. 이때부터 중산간 마을 재건은 4·3전략촌 형태를 유지하면서 귀순자와 이재민들의 수용과 토벌대의 거점지 역할을 담당했다.

이 시기 제주 4·3전략촌의 성담은 폭 2~2.5m, 높이 3~3.5m로 성을 쌓고, 그 곳에 주민들을 거주시키면서 주민들에 의해 자체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물론 이때부터 군·경·민 합동 토벌에 차출되었고 산에 있다가 내려 온 사람들은 귀순공작대로도 활동하였다.

1949년 8월 말 현재 7,379명의 귀순자와 97,703명의 이재민을 구하고자 35개 '재건부락'이 세워졌으나, 아직 3만여 명 밖에 수용하지 못하였다.⁸⁸⁾ 산으로 피신했다가 동척회사 수용생활을 마치고, 노형동 4·3전략촌인 '정존성'에 돌아왔다는 양중화는 귀순자들이 성안에 제일 먼저 입주했다고 했다. 제주시내 수용소가 포화상태였기 때문에 시급히 재건부락을 건설하여 귀순자들을 분산 수용하는 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동척회사에서 석방되어 정존(노형동 자연 마을의 하나)로 왔는데 성담은 쌓아져 있었고 사람들은 안 들어왔고 우리가 제일 처음 들어온 거죠. 맨 처음에 미국놈들 천막을 쳐서 살기 시작했죠. 귀순자에게는 '귀순증'이 있었어요. 나는 재검속 당하면 죽는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정존성안에는 귀순자만 천막 쳐서 살다가 나중에 한 사람 앞에 한 호당 20평씩 끊어주었어요 반을 만들어서. 반으로 해서 반장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니까 귀순자 천막이 없어지고, 각 가족 만 씩 반으로 해서 살았습니다.⁸⁹⁾

87) 「6년만의 해후, 咸중장 함명리민과 감격의 악수」, 『제주신보』, 1955년 2월 5일.

88) 「변모한 제주 삼다, 10만 재민의 구호 긴급」, □□서울신문, 1949년 9월 1일.

89) 양중화, 제주시 노형동, 2004년 11월 9일 자택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그러나 재건사업은 원만하게 수행되지 않았다. 우선 완전 소각된 마을부터 재건에 착수했으나, 재목의 벌채와 수송의 어려움 때문에 임시로 함석집이나 초막을 지어 주민들을 수용했다. 계속하여 무장대의 세력은 위축되고, 토벌대를 피해 야산으로 숨었던 피난민들이 대거 귀순해오면서 해안마을에 수용시설은 턱없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 시기 제주도민들은 좁은 공간에서 열악한 의식주와 하루도 빠질 날 없는 경비 활동으로 4·3 기간 동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 공간은 좁고 거주민은 많아 위생 상태가 심각했고, 아이들과 노인들은 각종 전염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하는 수가 많았다. 이렇게 중산간 일대 4·3전략촌은 5~6년 동안 유지되었다.

중산간 일대에 4·3전략촌과 전방 3km 지점에 경찰주둔소⁹⁰⁾가 설치되었고 1952년도에는 전도에 32개 주둔소가 설치되었다. 경찰은 한라산 금족령을 재차 내리고 위반 시는 통비로 인정, 엄단에 처한다는 발표를 했다.⁹¹⁾ 이 시기 토벌대 주둔소는 20~30리씩 전진 배치되어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작했다.

3) 재건과 잔여 무장대 완전 소탕을 위한 4·3전략촌 구축

이때는 잔여 무장대가 5명⁹²⁾으로 좁혀져 막바지 소탕작전과 산간마을의 완전 재건에 전력을 다 할 때이다. 이 시기는 1954년 4월부터 1957년 4월까지이다. 1954년 4월 1일 전면적으로 산간부락에 입주허가가 내려졌고, 그해 9월 21일은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 되어 주민들은 성담 경비 활동에서 해방되었다. 1957년 4월 2일은 마지막 무장대 오원권이 잡혀 제주 4·3이 완전 종결되었다. 제주도가 4·3 이후 차츰 안정을 되찾으면서 도 당국과 주민들은 복구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다. 이 시기 4·3은 끝났지만 마을 재건과 정착 사업은 60년대까지도 진행

90) 1950년이 되면 중산간 높은 지대를 요새로 경찰 주둔소가 설치된다.

명도암 주둔소, 선인동 주둔소, 동원 주둔소, 해안동 주둔소, 서원 주둔소, 유수암 주둔소, 어음리 주둔소, 월림주둔소 등.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 43유적□□, 각(2003~2004)

91) 「금지 구역 출입말라, 위반자는 통비로 인정 할 터, 尹경찰국장 일반에 요망」, 『제주신보』, 1952년 9월 30일.

92) 「한라산 잔비는 이제 5명! 2과분열코 절망의 연명, 온정의 포섭에 여비 1명 또 귀순」, □□제주신보□□, 1954년 2월 16일

된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마을 복구사업은 활발히 전개 되었다. 산간 부락인 조수리, 청수리, 와산리, 금악리, 동광리, 도평리, 해안리, 덕천리 등은 주민들의 진정서를 받아들여 1954년 초에 복구허가가 내렸다. 1954년 3월 18일 경찰은 「한라산에 봄이 오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으며, 4월이 되자 해안 부락에 소개되었던 산간부락민들에게 전면 입주 허가가 내려졌다.⁹³⁾ 그해 9월 21일은 한라산이 전면 개방되고, 주민들의 성곽 경비령도 철폐되어 제주 4·3 발발 8년 만에 찾아 온 자유였다.

한국전쟁 이후 중산간 일대 대대적인 정착사업은 정부나 외국의 지원을 받으며 착수한 시기이다. 이때는 4·3이 종결되고 제주도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잃어버렸던 마을을 재건하는 것에 매진했다. 소규모 자연마을까지 복구가 이루어지던 시기로 성담은 해안마을이나 중산간 마을 보다 낮고 허술하며, 넓은 지역을 두른 것이 특징이다. 폭 1~1.5m, 높이 2.5~3m 정도였다. 이 시기는 5명의 잔여무장대가 한라산에 남아 있다 해도 그 세력이 아주 미미하여 성담이 필요치 않았는데도 정부는 반드시 축성 후 입주시켰다.⁹⁴⁾ 이는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를 대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경진 경찰국장은 1,300여 자로 인쇄된 ‘완전평화의 길’이라는 제호의 뼈대를 전도에 뿌려 향후 3개월간 철저한 경비를 당부했다.

절량(絶糧)에 빠지고 탄환까지 떨어져 두 갈래로 분리되어 있는 잔비는 경찰전투대의 맹렬한 색적을 피하여 목하 일선 산간부락 및 해안선 무성(無城)부락에 접근하고 독립 소개가옥이나 계곡 등에서 은거하면서 야외의 양곡이나 가축을 도취하여 월동연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 향후 3개월간 부락성의 철저한 경비, 야외 방목 및 식량의 방치 금지와 야간 통행시간의 엄수를 거듭 요망하고 있다.⁹⁵⁾

93) 「한라산에 봄이 오다! 산간부락 4월부터 전면적 입주.李국장 천명」, 『제주신보』 1954년 3월 18일.

94) 이 시기 산간 마을에 재건 허가가 내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입주를 위해 쌓은 성이 남아 있다. 어음2리성, 선흘리 웃선흘성, 제주시 월평동성, 노형 광평마을 등이고, 그외로 이 시기 재건된 마을은 대흘리, 와흘리, 와산리, 금악리, 상대리, 상명리, 청수리, 무릉2리 인향동 등이다.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 43유적□□, 각(2003~2004)

1954년도 초, 제주시 월평동에 드디어 재건허가가 내려졌다. 주로 화북동에 소개 갔다가 임시 봉개동과 아라동에 살던 월평동주민들이 정다운 고향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당시 학생으로 일요일만 축성 작업을 도왔다는 김양언은 이렇게 말했다.

54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니까 가서. 성담도 부모네 없으니까 일요일 때는 어려도 가서 쌓고. 성담 높이는 3.5m정도, 지금도 그 높이 그대로 있어요. 굽은 1m는 더 났을 거예요. 1.2m 놔서 위 폭은 30cm정도. 성 쌓고 밑에 허술한 데는 가시나무 해가지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거로(화북2동)에 살면서 성 쌓고 고향에 갈 사람은 일허레 다 나오라고. 화북 사람들이 그냥 노력지원들도 많이 해주었어요. 어린 아이라도 심부름이라도 하고, 돌세기 하나라도 주워 놔야 한다고 해서 갔죠.⁹⁵⁾

이 시기는 제주시 산간 마을인 용강동과 영평동의 자연마을 까지도 입주 허가가 내려져 속속 그림던 마을을 찾아갔다. 그러나 터전을 빼앗기고 살았던 5~6년은 그들에게 복구에 대한 의지가 상실해 버렸는지 재건안된 마을이 많았다.

1957년 4월 2일 마지막 무장대 오원권이 생포되면서 경찰은 만 9년 만에 한라산 잔비 토벌전에 마침내 중지부를 찍었다며 “살인, 방화, 약탈 그리고 양민의 납치, 학살을 일삼아 한 때 전 도민을 암흑과 불안 속에 몰아넣은 4·3사건의 여진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고 했다.⁹⁷⁾

2. 제주 4·3전략촌의 구조

1) 안덕면 화순리 4·3전략촌성 구조

95) 「토비 완수에 유종의 협조를 요청, 잔비 두목에 10만환 현상, 피랍 불가피 경우엔 범죄불문」, 『제주신보』, 1954년 3월 3일.

96) 김양언, 제주시 월평동, 2004년 9월 3일 증언자가 운영하고 있는 건영상사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97) 「토벌전에 중지부! 9년만에 평화 찾은 한라산, 최후의 잔비 □□뒀□□를 생포, 유격대 송당리 장기동서」, 『제주신보』, 1957년 4월 3일.

제주 4·3전략촌의 구조는 비교적 마을 자체에서 조사가 잘 되어 있는 안덕면 ‘화순리 4·3전략촌성’과 제주시 연동 ‘도호동 4·3전략촌성’을 선택하였다. 또 하나는 북제주군 선흘리 ‘낙선동 4·3전략촌성’의 구조로 필자가 별도로 현장조사 하여 낙선동 주민들로부터 복원해 낸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안덕면 ‘화순리 4·3전략촌성’은 안덕면 소개작전⁹⁸⁾이 완료되는 1948년 12월부터 축성한 해안전략촌성으로 화순리 마을을 두른 장성이었다. ‘화순리 4·3전략촌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총 성담의 길이는 내·외성 포함 자그만치 3,465m나 되며 성문이 7개소(동문, 서문, 북문, 북동문, 북서문, 서남문, 서중문)이며, 망루는 10개소, 외곽 경비 초소 3개소(개뻥대기, 진똥 동산, 처남동산)로 되어 있다.⁹⁹⁾

안덕면 화순리는 안덕면사무소와 안덕지서가 자리잡고 있어 무장대의 주요 습격 대상지로 2차례의 무장대 습격으로, 면사무소가 전소되고 많은 피해가 있었다. 경찰은 1948년 11월 주민들을 동원해서 안덕지서 성담을 쌓게 한 뒤 바로 화순리 일대에 성담을 두르게 하였다. 1차(내성)는 지서성담을 이어 마을을 두르게 했는데, 길이가 2,473m, 성곽의 폭은 2.5m, 높이 3.5m 였고, 1948년 11월에 완성되었다. 2차(외성)는 길이 992m의 고깔 모양이고, 그해 12월에 완성되었다.

이때 동원된 상황을 보면 청장년은 경비대원으로 차출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여 세대별 제한 없이 노역이 가능한 15세 이상의 주민들이 총동원되었다. 남자들은 주로 성을 쌓는 일과 돌을 치우는 일을 맡았고, 여자들은 돌을 등에 지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 심지어 부인들의 경우 아기 구덕을 옆에 두고 돌 운반 작업에 매달려야 했다. 매일 같이 안덕지서로 부터 축성 할당량을 지시 받았으며 그들의 감독 아래 노역이 이뤄졌다.¹⁰⁰⁾

98) 안덕면 소개 작전은 동광리, 서광리, 광평리, 상천리 등은 11월 중순부터 이루어졌다. 체민일보 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5, 1997, 243~299쪽

99) 화순리, 『화순리지』, 2001, 277~279쪽.

100) 화순리, 앞의 책, 277~280쪽.

<그림-1> 화순리 4·3전략촌성 구조도101)



101) 화순리, 『화순리지』, 2001, 277쪽.

<그림-1>는 ‘화순리 4·3전략촌성’ 구조도이다. 서쪽 성담은 거의 바다까지 내려간 반면, 동쪽 성담은 동문에서 조금 내려가다 그쳤다. 이것은 아마도 인근 마을인 감산리와 성담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외성 모양이 특이한데 내성이 지서와 붙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지서를 보호하기 위한 성담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에 비해 성문과 망루가 많은 편으로 이는 그만큼 경비 활동이 고됐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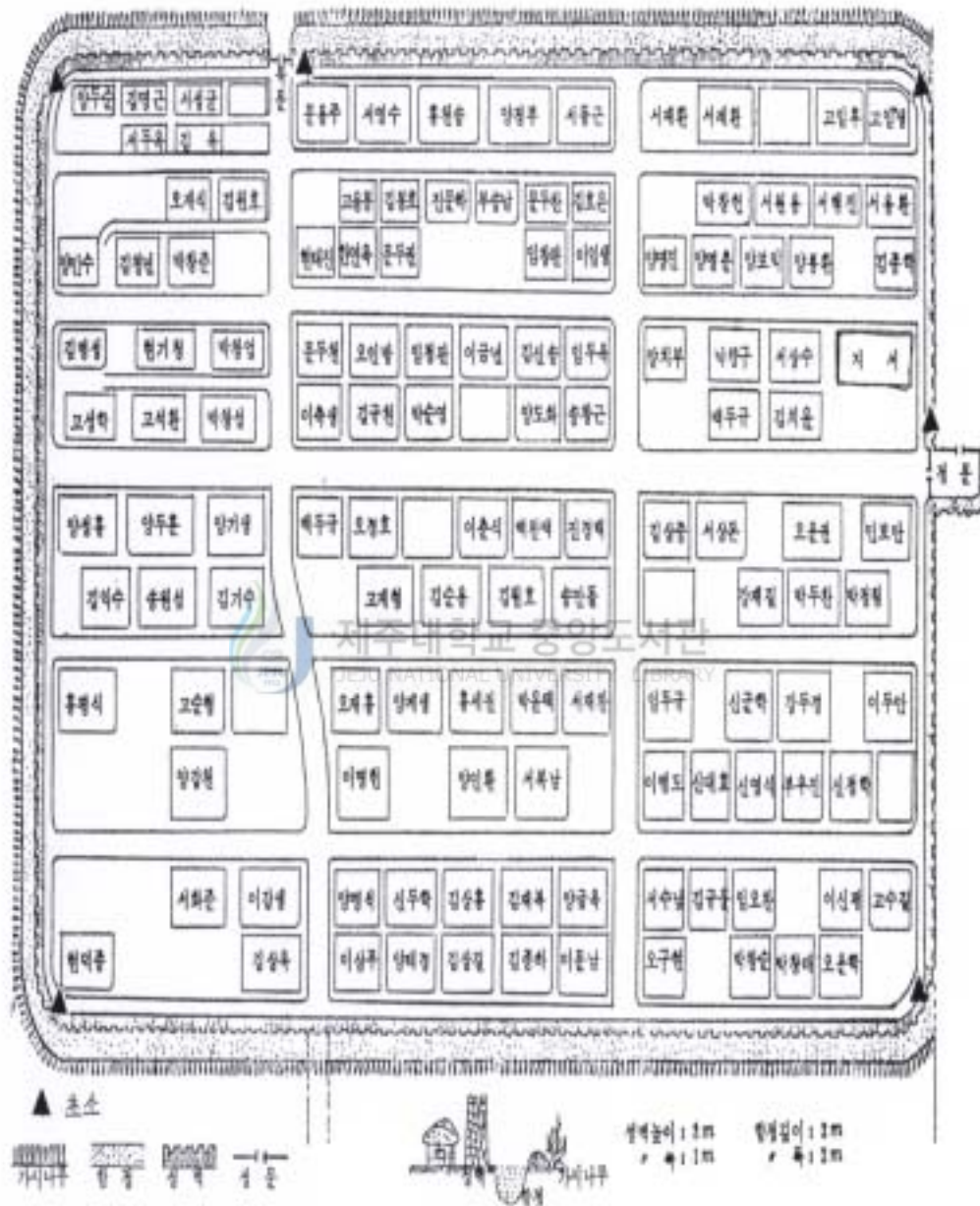
2) 제주시 연동 도호동 4·3전략촌성 구조

제주시 연동 ‘도호동 4·3전략촌성’은 현재 주택개발로 인해 다 허물어져 남아 있지 않다. ‘도호동 4·3전략촌성’은 중산간 마을에 세워진 전략촌성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좁은 공간에서 5~6년 동안 고통을 감수하며 살았던 곳이다.

□□연동향토지□□에는 도호동에 성을 쌓고 살았던 내용과 성담의 모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949년 1월 11일 해안마을로 소개되어, 1949년 3월에 비로소 재건 명령이 내려졌다. 성을 쌓는 작업에는 해변마을로 소개되었던 연동주민들과 오라 3동 주민들이 매일 같이 동원되었다. 약 20여 일 동안의 작업 끝에 ‘도호동 4·3전략촌성’은 완성되었다. 마무리 되어 갈 무렵 야산에 숨어 살던 주민들이 하나 둘씩 귀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1949년 4월 29일 소개령이 해제되자 연동 주민들은 도호동 성내로 입주가 허용되었다. 연동리 전 부락이 모두 ‘도호동 4·3전략촌성’에 모여 살게 되면서 집단촌이 형성되었다.

<그림-2>의 ‘도호성 4·3전략촌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성 내부의 도로망과 취락구조는 마치 지금의 신제주 시가지를 방불케 하는 계획적인 바둑판 형태의 마을을 이루었다. 성 내부의 면적은 30,400㎡(9200여 평)였으며, 동서길이 190m, 남북길이 160m로서 성의 총 연장은 700m였다. 동쪽 중앙에 정문과 북쪽에 북문이 있었고, 성의 동쪽 정문에 연하여 경찰지서와 민보단 사무실이 위치해 무장대의 습격에 대비했다. 성안에서 개인적인 행동은 여러 가지로 제한되었고, 거의 황폐화 된 보리밭에 나가 반작도 안 되는 보리 이삭을 거두며 연명할 궁리를 해야 하였다.

<그림-2> 연동 도호동 43전락촌성 구조도¹⁰²⁾



102) 연화친목회, 『연동향토사』, 1986.

‘도호동 4·3전략촌성’의 경계근무는 15세 이상 70세 미만의 남자들로 구성된 민보단이 담당하였고, 미혼 여성으로 구성된 여자한청이 조직되어 이들 또한 초소와 초소간의 간격을 보강하고 연락 임무를 맡았다. 근무감독은 지서의 경찰과 민보단 간부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독려하곤 하였다. 외곽초소는 동산동에 2개 초소가 있었으며 성내에는 7개 초소가 설치되어 무장대 내습을 경계하고 경보 하였다.¹⁰³⁾

‘도호동 4·3전략촌성’은 단지 성담 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습격에 대비, 성 외부에 깊이 2m, 폭 2m인 함정을 파고, 가시나무를 쳐 위장하였다. 성의 높이는 3m 이상이며 폭은 1m정도 되었다. 동쪽에 설치된 정문은 웅성으로 되어 있고, 동쪽 성담쪽에는 성호를 파지 않았다. 마을에서 일일이 당시 살았던 집들의 세대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이름만 적혀 있어 집의 구조는 알 수가 없다.

필자는 당시 중산간 4·3전략촌 안에 주민들이 대부분 돌담을 올려놓고 나무를 걸쳐 역새를 덮어 놓은 함바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미루어 이곳 역시 함바집¹⁰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9천여 평의 성안에 마을에서 조사된 세대수만도 134호¹⁰⁵⁾나 되었다. 아마 세대는 더 있었을 걸로 추정되며 학교도 있었을 것이다.

4·3으로 폐허가 된 마을의 재건은 도호동을 중심으로 집성촌이 형성되어 살다가 1955년 3월에 연동 부근에 산재해 있던 자연마을들이 재건되기 시작한 다.¹⁰⁶⁾

3) 조천면 선흘리 낙선동 4·3전략촌성 구조

북제주군 조천면 선흘리 ‘낙선동 4·3전략촌성’은 중산간 4·3전략촌의 일반적인 구조였다. 다행히 ‘낙선동 4·3전략촌성’은 현재까지 그 형태를 잘 간직하

103) 연화친목회, 『연동향토사』, 1986. 132~135쪽.

104) ‘함바’는 토목 공사장, 광산의 현장에 있는 노무자 합숙소의 의미지만, 주로 가건물을 두고 부른다.

105) 도호동성안 네모의 숫자이다. 빈칸 네모는 호주가 정확하지 않아 기입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6) 연화친목회, 『연동향토사』, 1986, 137쪽.

고 있어 4·3 유적지 답사를 위해 자주 찾는 곳이 되었다. ‘낙선동 4·3전략촌성’은 앞서 <그림-2>에서 본 ‘도호동 4·3전략촌성’과 면적만 다를 뿐 아주 흡사하다.

조천면 선흘리는 300여 호 되는 중산간에서 제법 큰 마을이었다. 1948년 11월 21일 군인들에 의해 선흘리가 전소되면서 주민들은 인근 선흘곶으로 피신하던가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소개되었던 주민들은 1949년 봄부터 ‘낙선동 4·3전략촌성’을 구축하고 입주하여 1954년 선흘리 ‘웃선흘리’가 재건될 때까지 6년 동안 ‘함바공동체’를 이루며 고난의 시절을 버텨나갔다. 지역주민들은 이곳을 ‘알선흘 함바’라 불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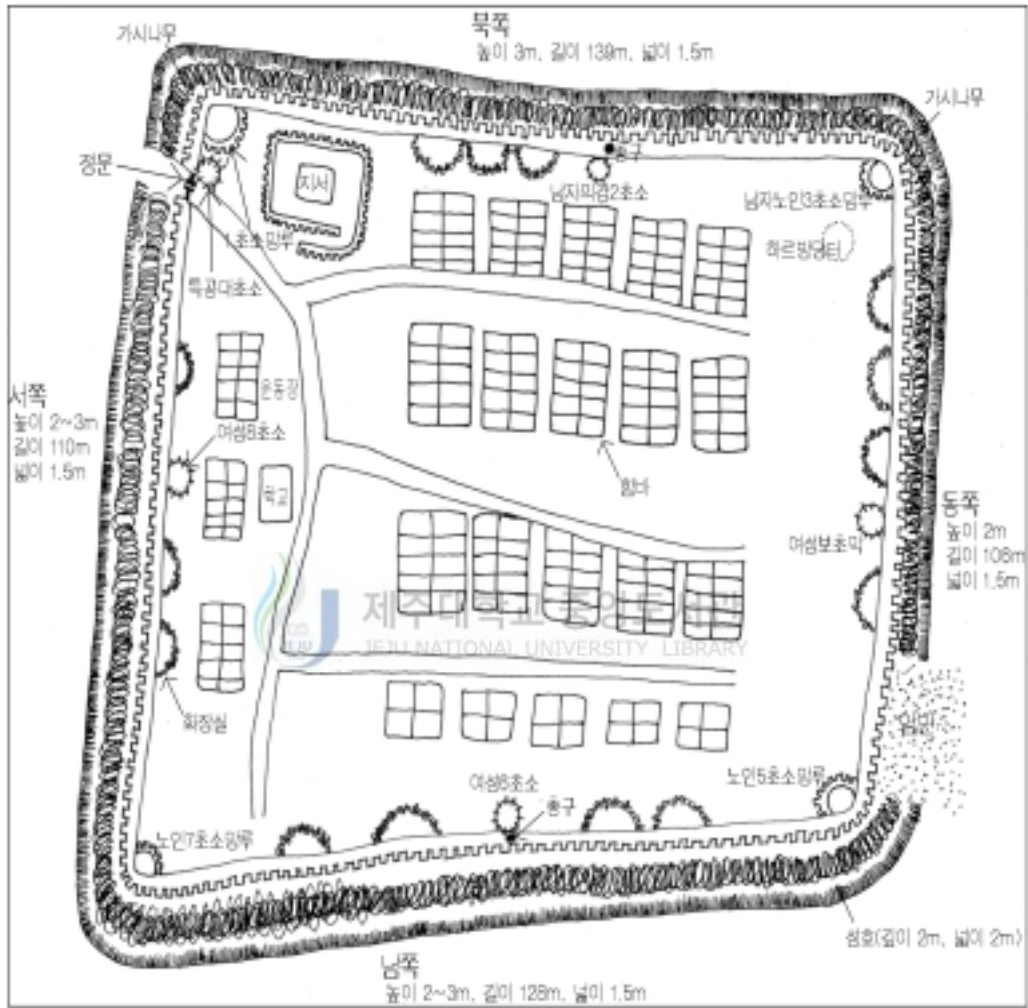
<그림-3>의 선흘리 ‘낙선동 4·3전략촌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성벽은 사각형 모양으로 총 길이는 대략 500m로, 동벽 110m, 서벽 110m, 남벽 130m, 북벽 140m이며, 성안 면적은 15000㎡(4500여 평)이다. 폭 1.5~1m, 높이 3~3.5m의 규모로 쌓았다. 네 각 모서리에는 높이 5m, 지름 3~4m 원형 모양의 이층구조식 망루를 세웠다. 또한 중간에도 간이 2층 구조의 초소막을 세웠다. 성담 위에는 사람 모양의 돌을 군데군데 엮어 놓았다.

② 함바집은 길게 돌담을 쌓고 군데군데 나무기둥을 세워 놓고 지붕은 나뭇가지로 걸쳐 놓아 새(주: 띠)로 덮으면 완성이었다. 칸막이는 억새를 세끼줄로 엮어 돛자리처럼 만든 다음 세우면 되었고, 함바집 한 동마다 다섯 칸씩 갈라 다섯 세대가 들어가 살았다. 방, 마루, 부엌 구분이 없었고, 바닥도 억새를 깔라 놓은 것이 전부였다. 함바의 높이는 1.2m로 몸을 굽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였다. 이곳 ‘함바’에는 와산리, 웃선흘, 알선흘, 선인동 주민들이 들어왔다. 처음에 50세대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250세대까지 불어났다. <그림-3>에는 200세대가 표시되어 있다.

③ 성안에는 이 곳 사람들을 통제하고 경비순찰을 담당할 함덕지서 파견출장소가 정문 동쪽 30m 지점에 설치되었다. 지서 정문은 웅성 모양으로 쌓고, 성담 폭 1m, 높이 2m로 쌓아 만일에 있을 습격에 대비했다.

<그림-3> 선흘리 낙선동 4·3전략촌성 구조도¹⁰⁷⁾



107) ‘낙선동 구조도’는 2004년 10월, 필자가 낙선동 주민들로 부터 구술채록 하여 구조도를 그려냈 음 밝혀둔다. 이를 위해 고훈봉, 김내수, 부양하, 장두일, 김형조, 고성준 등을 채록하였다.

④ 학교는 함덕국민학교 선흥리분교가 정문에서 남쪽으로 30m 거리에 학교와 운동장이 있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도 주민들은 아이들 교육부터 생각했다. 학교는 정식 교육청의 인가를 받았으며 학생 15명과 교사 2인으로 운영되었다.

⑤ 성호(城壕)는 성담 밖을 돌아가며, 깊이 2m, 폭 2m로 깊게 파으며, 땅을 파는 것이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축성 작업 보다 더한 노동이었다. 성호를 위장하기 위해 가시덤불을 잘라다가 호 속에 담아놓았고, 성담에도 가시나무를 덮어놓아 무장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동쪽에 암반 때문에 성호를 파지 못한 곳으로 1951년 5월 무장대의 습격도 있었다.

⑥ 망루는 내부가 이층 구조로 사각형 모양인 성의 귀퉁이 마다 세워져 있었다. 망루 보조경비로 하룻밤에 5명씩 배정되었고, 1명이 이층으로 올라가 밖을 감시하면 4명은 대기하다가 교대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네 개의 망루 외에도 성담 중간 네 군데에도 간이 초소막이 있었고, 정문 쪽까지 초소막은 아홉 군데가 되었다.

⑦ 성안의 길은 동서로 3개의 길을 만들어 4구역으로 나뉘었다. 구역 안에는 함바집이 10동씩 들어서 있었다. 1동의 함바집에 5세대가 칸칸이 칸을 갈라 들어갔다. 대중에 1세대나, 2세대만 살았던 개인 함바집도 있었다.

⑧ 함바에서의 화장실은 각 성벽 마다 3~4개로 총 15개 정도가 성담에 붙어 있었다. 성담에 반원 모양으로 돌을 쌓아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게 디딤돌을 두개 놓으면 되었고, 여유 있는 집은 화장실에서 돼지를 키우기도 했다. 거주민 수보다 화장실이 모자라 비가 올 때면 넘치기 일쑤였고, 냄새는 항상 지독했다고 한다.

⑨ 하르방당은 성안 북벽 끝 지경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당목과 당집도 1948년 11월 초토화 작전에 불 타버렸고, 낙선동 성안에 사람들이 살면서 당은 마을 북쪽에 옮겨져 설립되었다.

1954년 봄, '낙선동 4·3전략촌성'이 해제되고 웃선흥(본동)에 성담을 쌓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낙선동 성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예전의 마을과 집터를 찾아 떠나갔으나 원래 알선흥인 '독바령'이나 '봉녕이 동산' 마을 사람들은 성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때 남은 가호 수가 23호였고, 현재는 15호만 낙선동 성안에 남아 있다.

IV. 결 론

이 연구는 제주 4·3전략촌의 형성과정과 제주 4·3 진압작전의 연관성, 4·3 전략촌성의 축성과정과 규모, 형태,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 4·3 진압작전과 제주 4·3전략촌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제주 4·3전략촌의 형성 과정과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제주 4·3전략촌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했고, 그에 따른 중산간 마을 재건 과정은 어떠한가, 넷째, 제주 4·3전략촌은 어떠한 구조로 제주도민을 6년 동안 감시했는가, 다섯째, 당시 구축한 4·3전략촌성은 어떤 역할이었는데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4·3전략촌의 배경은 제주 4·3 진압작전을 ① 제주도를 대게릴라전과 같은 전술과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 ② 토벌대 수뇌부들은 일제강점기에 지원병과 만주군 항일운동세력 대토벌전에 참가한 경력들이 있었다는 것, ③ 이 모든 것이 미국의 대한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의 단선·단정 반대의 열망을 정부는 일방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로 몰아 이승만 정권 세우기에 제주도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또한 미국의 방화 - 소개 - 초토화 전술, 민간이 대량살상 전술은 전 세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현지 민중들을 상대로 동일하게 재현하는 진압작전의 한 선례로, 제주도는 반공투쟁의 전초기지로서 시험 무대였다.

둘째, 제주 4·3 진압과정에 나타난 4·3전략촌은 ‘선량한 양민’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을 집단부락에 수용하고 그 외는 썩쓸이하기 위한 정부군의 선택이었다. 집단부락 내 주민들은 신분을 보장하는 양민증을 발급 받고, 무장대로부터 차단과 방어를 목적으로 성담 쌓기에 총 동원되었으며, 밤낮으로 마을을 지키는 업무에 시달렸다. 또한 4·3전략촌성의 구축은 제주 4·3을 해결하는데 최고의 수

단이 되었다. 정부는 제주 도민을 전략촌성 안으로 몰아넣은 뒤 단기간에 토끼몰이식 소탕작전을 실시하여 사실상 무장대 토벌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1947년 3·1사건으로 부터 확대된 4·3 봉기, 마지막 무장대 오원권이 잡힌 1957년까지, 10여년을 4·3의 굴레 속에 제주도민들은 힘겹게 살아왔다. 제주도민들은 정부의 지시대로 해안으로 내려가서 성담 쌓고 살아라, 다시 마을을 재건하고 성담 쌓고 지켜라, 경찰파견소나 인근 경찰주둔소 식사를 담당해라, 열심히 토벌에 협조해라 등 4·3에 대한 제주도민에게 연대 책임지우기로 숨통 한번 크게 쉴 수가 없었다.

제주 4·3전략촌은 4·3 이후에 힘의 중심을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마을로 옮겨놓았고, 예전의 혈연공동체와 같은 결속은 사라지고 불신·이간하는 풍조가 확산 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란의 제주 4·3을 겪은 제주도민들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재건의 의지를 불태워 오늘의 제주도를 건설하였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제주 4·3전략촌 형성 과정에 토벌대 수뇌부들의 일제 대토벌 경력과 4·3 진압작전과의 개연성을 찾고자 했으나 자료 부족과 조사한계 등으로 밝혀내는데 미흡했다. 제주 4·3전략촌 형성의 명령 주체 또한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밝혀내질 못했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4·3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① 당시를 살아온 제주도민들의 생활상 연구, ② 마을 복구 및 재건상황 연구, ③ 4·3 석성과 관련한 제주 4·3전략촌성, 지서성, 토벌대 주둔소성에 관한 연구, ④ 당시 신분증이었던 양민증과 도민증에 대한 연구, ⑤ 4·3 피해 실태 연구 등 앞으로 4·3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 참고문헌 >

1. 학위논문

- 강성현, 『제주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 김동국,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처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박명립, 『제주도 4·3 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8.
- 양봉철, 『제주경찰의 성격과 활동연구-‘제주4·3’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2002.
- 양정심,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95.
- 윤석찬, 『4·3이 제주 교육에 미친 영향-교육시설의 피해를 중심으로』,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1.
- 윤휘탁, 『일제하 만주국의 치안숙정공작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1995.
- 이영권, 『제주도 유력자 집단의 정치사회적 성격』(1945~1960),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0.
- 함옥금, 『제주 4·3의 초토화 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허호준,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2.

2. 논문·단행본

- 강준만, 『현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2004.

- 강창언, 『제주도 환해장성 연구』, 『탐라문화』 제1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 김동만, 『4·3박물관- 양민증』, 『제주 4·3연구소 소식』 제 14호, 1995.
 _____, 『시오름주둔소』, 『4·3장정』 5, 제주 4·3연구소, 1992.
- 김동춘, 『한국전쟁의 리면- 집단학살로서 한국전쟁』, 조선사 연구회, 2002.
 _____,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1.
-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관방시설의 연구』, 『제주도사연구』 제9집, 제주도사 연구회, 2000.
- 김순태, 『제주 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김익렬, 『실록유고-4·3의 진실』,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전예원, 1994.
- 김점근,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박영사, 1973.
- 김종민, 『4·3이후 50년』,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_____, 『제주4·3항쟁-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통권 42호, 역사비평사, 1998.
- 김창후, 『넬슨 특별감찰보고서-제주도의 정치상황에 나타난 제주도지사 유해진』, 『제주도연구』 제17집, 제주학회, 2000.
- 노민영 엮음, 『잠들지 않는 남도』, 온누리, 1988.
-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권, 역사비평사, 1999.
 _____, 『제주4·3의 역사적 의미』,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양조훈, 『제주4·3의 역사적 조명』, 『제주도 연구』 15, 제주학회, 1988.
 _____, 『제주도 메이데이를 통해 본 미군정의 4·3 토벌정책』, 『제주4·3 제 51주기 기념 세미나자료집』, 제주4·3연구소, 1999.
- 양정심,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 4·3항쟁의 배경』,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이윤, 『진중일기』, 여문각, 2001.
- 이도영 편역,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장세윤, 『조선혁명군 연구』,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 4집, 1990.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1』, 전예원, 1994.

_____ ,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_____ , 『4·3은 말한다 3』, 전예원, 1995.

_____ , 『4·3은 말한다 4』, 전예원, 1997.

_____ , 『4·3은 말한다 5』, 전예원, 1998.

제주도, 『제주도지』, 1993.

제주 4·3연구소, 『제주항쟁』, 실천문학사, 1991.

_____ , 『이제사 말함수다』 I·II, 도서출판 한울, 1989.

_____ , 『43장정』 I ~ VI, (1990 ~ 1993)

_____ , 『43과 역사』 I ~ IV, (2001 ~ 2004)

제주4·3제50주년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탐라문화』 제11호, 1991.

현용준, 『한라산을 오르듯이』, 각, 2003.

3. 간행물·자료집

건국청년운동협의회,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1989.

권귀숙, 『제주 4·3의 기억들과 변화』, 『제주 4·3 5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3.

김동만, 『제주 4·3항쟁 진압작전과 주민학살』, 『제주 4·3연구소·역사문제연구소
공동 4·3학술기행 자료집』, 1994.

대검찰청, 『좌익사건실록 1권』, 1965.

대한민국국방부전훈국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권 - 해방과 건군』, 1967.

제주도, 제주 4·3당시 『잃어버린 마을 실태조사서』, 2000.

- 제주도 경찰국, 『제주 경찰사』, 1990.
-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 4·3유적 I』, 각, 2003.
- _____, 『제주 4·3유적 II』, 각, 2004.
- 제주4·3연구소, 『제주4·3 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도의회, 2000.
- _____, 『제주4·3 자료집 II- 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각, 2001.
- 제주도, 『제주도의 방어유적』, 1996.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자료집』 (1~6) 2002.
- _____, 『제주4·3사건 자료집』 (7~11), 2003.
- _____,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 제주도, 『제주실록』, 1997.
- 제주도,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2003.

4. 마을지



- 서흥동, 『서흥로』, 1996.
- 성산리, 『해뜨는 마을』, 2005.
- 성산읍, 『성산읍지』, 2005.
- 수산리, 『수산리지』, 1994.
- 신도리, 『신도향사』, 1987.
- 신례1리, 『예촌지』, 1988.
- 오대현, 『표선면 향토지』, 1983.
- 오성찬, 『제주의 마을시리즈』, 반석출판사.
- 온평리, 『온평리 마을지』, 1991.
- 위미신용협동조합, 『위미리지』, 1991.
- 인성리마을회, 『인성리 향토지』.1998.
- 애월읍, 『읍지』, 1997.

연화친목회, 『연동향토사』, 1986.
 제제주시귀덕2리친목회, 『귀덕2리지』, 2000.
 종달리, 『지미의 맥(종달리)』, 1987.
 한동리, 『둔지오름』, 1997.
 화순리, 『화순리지』, 2001.
 화북동, 『화북동향토지』, 1991.

5. 구술자 명단

김형조(남, 1922년생, 83세, 북군 조천읍 선흘리)
 고성준(여, 1925년생, 북군 조천읍 선흘리)
 고태봉(남, 1932년생, 북군 조천읍 선흘리 낙선동)
 김내수(여, 1930년생, 북군 조천읍 선흘리 낙선동)
 장두일(남, 1932년생, 북군 조천읍 선흘리 선인동)
 부양하(남, 1934년생, 북군 조천읍 선흘리 낙선동)
 강위옥(작고, 제주시 월평동)
 강재운(남, 1922년생, 북군 애월읍 하귀리)
 강갑능(남, 1913년생, 북군 애월읍 용흥리)
 송주형(남, 1921년생, 제주시 오라동)
 김자봉(남, 1930, 북군 구좌읍 한동리)
 강문팔(남, 1923년생, 남군 안덕면 화순리)
 양중윤(여, 1927년생, 제주시 화북동)
 현용준(남, 1931년생, 제주시 용담동)
 강좌겸(남, 1927년생, 제주시 이도동)
 허태헌(남, 1935년생, 제주시 도남동)
 이순정(여, 1932년생, 북군 애월읍 애월리)

신순영(남, 1934년생, 북군 구좌읍 동복리)

이윤(남, 1924년생, 제주시 연동)

문명옥(남, 1932년생, 남군 표선면 성읍리)

양태보(여, 1918년생, 제주시 봉개동)

양중화(남, 1932년생, 제주시 노형동)

김양언(남, 1940년생, 제주시 월평동)

6. 신문 · 잡지

『경향신문』 『독립신보』 『동광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연합신문』 『제주신보』 『조선일보』 『한성일보』 『해방일보』 『현대일보』 『자유신문』 『노력인민』 『월간제주』 『조선중앙일보』 『국도신문』 『대동신문』 『국제신문』



7. 번역서

노암 촘스키, 김보경 역(1996),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한울.

마리아 휘버, 「냉전의 뿌리-히로시마에서 제주까지」, 『제주 4·3의 기억』, 각, 2004.

브루스 커밍스, 김주환 역, 『한국전쟁의 기원』(상·하), 청사, 1986.

_____, 일월서각 편집부 역, 『분단전후의 현대사』, 일월서각, 1983.

존 메릴, 「제주도반란」, 『제주민중항쟁』 1, 소나무, 1988.

8. 국외 연구논문·자료집

Valentino, Benjamin, *Final Solutions: Genocide and mass killing in 20th Centur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미군CIC정보보고서』, 중앙일보현대사연구소편, 1996.

『주한미군사』, 돌베개, 1988.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Hq. 7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Hq. USAFIX. G-2 Periodic Report(『주한미군 정보일지』. 한림대 아시아문화 연구 소영인, 1988)

Hq. USAFIX. G-2 Weekly summary(『주한미군 주간정보요약』.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영인, 1988)



<국문초록>

1948년 4월 3일, 무장대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선·단정 반대와 조국의 통일독립, 반미구국투쟁을 위해 봉기를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발포했다. 정부군은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제주도 해안마을에 제주 4·3전략촌을 구축하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민들을 가둬 놓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했다. 필자는 이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 4·3 진압작전과 제주 4·3전략촌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제주 4·3전략촌의 형성 과정과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제주 4·3전략촌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했고, 그에 따른 중산간 마을 재건 과정은 어떠한가, 넷째, 제주 4·3전략촌은 어떠한 구조로 제주도민을 6년 동안 감시했는가, 다섯째, 당시 구축한 4·3전략촌성은 어떤 역할이었는데에 대해 밝혀보고자 했다.

제주 4·3전략촌의 형성 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 4·3 진압과정에 나타난 제주 4·3전략촌은 ‘선량한 양민’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을 집단부락에 수용하고 그 외는 싸늘이하기 위한 정부군의 선택이었다. 집단부락 내 주민들은 신분을 보장하는 양민증을 발급받고, 무장대로부터 차단과 방어를 목적으로 성담 쌓기에 총 동원되었으며, 밤낮으로 마을을 지키는 업무에 시달렸다. 제주 4·3전략촌성의 구축은 제주 4·3을 해결하는데 최고의 수단이 되었다. 정부는 제주 도민을 전략촌성 안으로 몰아넣은 뒤 단기간에 토끼몰이식 소탕작전을 실시하여 사실상 무장대 토벌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1947년 3·1사건으로 부터 확대된 4·3 봉기, 마지막 무장대 오원권이 잡힌 1957년까지, 10여년을 4·3의 굴레 속에 제주도민들은 힘겹게 살아왔다. 제주도민들은 정부의 지시대로 무조건 해안으로 내려가라 해서 내려갔고, 다시 중산간

마을에 성담을 쌓고 경비와 토벌 활동을 하며 6년 동안 갇혀 살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파견소나 인근 경찰주둔소에 부식대기, 빨래하기 등 온갖 심부름을 해야 했고, 4·3에 대한 연대 책임지우기로 숨통 한번 크게 쉴 수 없는 나날을 보냈다.

제주 4·3전략촌은 4·3 이후에 힘의 중심을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마을로 옮겨놓았고, 예전의 혈연공동체와 같은 제주도민들의 결속은 사라지고 불신·이간하는 풍조가 확산 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란의 제주 4·3을 겪은 제주도민들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재건의 의지를 불태워 오늘의 제주도를 건설하였다.

